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우리 사회에 숨은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격려해온 한국여성지도자상이 제19회 수상자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시상부분	가. 대 상	나. 젊은지도자상
추천대상 및 자격	가. 대 상 전문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여성 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대한민국 여성 나. 젊은지도자상 전문성, 창의력, 헌신과 기여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여성의 역할을 열어나가는 만 50세 이하의 대한민국 여성 * 단 본 상과 유사한 상의 수상경력자는 제외함	
시상내용	가. 대 상 상패, 상금 3천만 원 * 단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균분하여 수여함	나. 젊은지도자상 상패, 상금 2천만 원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가. 발 표 2021년 10월	나. 시 상 2021년 11월 11일(목), 오후 2시
서식배부 및 접수	가. 추천서 배부 www.ywca.or.kr에서 다운로드 나.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3(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4층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우 04538) TEL 02-774-9706 FAX 02-774-9724 E-Mail koreaywca@ywca.or.kr 다. 접 수 기 한 2021년 9월 17일(금), 우편접수 마감 당일 소인 유효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TEL 02-774-9706)로 문의바람	

기획 한국YWCA 100주년, 비전과 바람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출범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공동위원장 3인 포부

이슈포커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지방세 감면 국회 긴급토론회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비상선언대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성평등활동 보고서

공공홍보물 차별 표현 모니터링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8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사)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고양	031.919.4040	(사)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광명	02.895.1966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양	061.762.0012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주	062.609.1300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군산	063.462.4491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사)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사)순천	061.744.7990	(사)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사)안양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사)대구	053.652.0070	(사)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사)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사)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사)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창립 99주년 YWCA 탈핵기후생명선언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하나님의 지구에서 자행된 인간 중심의 탐욕과 무한경쟁의 결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자 질서이고,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생의 자리에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개발과 성장의 논리는 여성과 미래세대, 사회 경제적 약자, 자연과 다른 피조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고, 기후 불평등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 정의를 실현하라는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여성

기후 변화를 멈추는
변혁의 주체입니다.

청소년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지역회원들

우리 지역을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과
자립 가능한 지역으로 바꿉니다.

한국YWCA 창립 99주년을 맞는 우리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고백하며, 100년을 이어 지속적인 우리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 새로운 탈핵기후생명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탄소 금식 행동을 실천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과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의 책임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탈석탄·녹색금융을 지지합니다.

하나, 우리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행동에 함께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한국YWCA연합회

2021.7·8 한국YWCA



표지이야기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1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심포에서 마침표로' 우리가 이제 전쟁을 끝내자고 국제행동에 참여했다. 고양, 대전, 인천, 울산, 서귀포, 청주YWCA 등 전국 회원 YWCA가 온라인 인종상 캠페인에 참여했다.

2021년 9-10월 주요일정

- 9월 2일 양성평등 임금의 날
- 9월 4일 제20회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1
- 9월 15일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포럼 1차
- 9월 28일 성평등 월간 토론회
- 10월 1일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포럼 2차
- 10월 2일 제20회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2
- 10월 1일~10일 YWCA 여성평화순례 '홀로 걷는 평화순례(온라인)
- 10월 12일 2021 YWCA 정책협의회
- 10월 15일 YWCA 여성평화순례 '평화 입산'(설악산)
- 10월 22일 YWCA 전국 사무총장협의회
- 10월 26일 성평등 월간토론회

제57권 제2호 통권 573호

2021년 8월 27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 김은주 구성혜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 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6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사회를 이끌고갈 YWCA 청년들 | 서다미
- 05 월례기도회
- 기획 한국YWCA 100주년, 비전과 바람
- 06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출범
- 08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공동위원장 3인 포부 | 김숙희 서다미 원영희
- 11 수상 소식 창설자 김필레 선생, 건국포장 수상
- 12 기후위기와 여성 생태 슬픔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 이윤숙
- 14 로컬프렌들리 이야기2 여행지가 아닌 여행처럼 사는 군산 | 김수진
- 16 청년토크 주린이 이야기 | 대학·청년Y
- 18 성평등 YWCA 성평등 월간 토론회 | 이한빛
- 21 정책 제안 지방세특례제정법 개정 촉구 입법 활동
- 22 이슈포커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지방세 감면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 25 YWCA변화와 혁신3 지역법인화 후 법인 책무성 검토해야 | 박동순
- 27 이달의 현장① 버마-미얀마 플랫폼 발족식
- 28 이달의 현장②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1주년
- 30 이달의 현장③ 인도코로나 극복을 위한 1922 릴레이모금 캠페인
- 31 이달의 현장④ 8.15 한반도평화 공동기도주일
- 32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비상선언대회
- 35 YWCA탈핵비상선언
- 36 성평등활동 보고서 공공홍보물 차별 표현 모니터링
- 39 성명서 기후위기 대응 포기하고 민주주의 왜곡하는 탄소중립위원회 규탄한다
- 40 연합회 소식
- 45 연합회 모금 현황
- 46 회원YWCA 소식

사회를 이끌어갈 YWCA 청년들



서다미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회장

한국YWCA 내에서 청년들은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YWCA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청년이 중심에 있었으며 YWCA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사회적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YWCA 공동체 속에서 청년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주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청년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세계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YWCA 내에서 자신과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얻어 왔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고, 받은 위로를 다시 상대방에게 나눠 주면서 YWCA 청년들만의 유대와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소통과 활동이 제한되어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가 약화되었습니다. YWCA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무기력해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복하기 힘들어 보였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청년성' 회복에 주력하여 YWCA 내에서의 청년의 입지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청년이 주도하고 이끄는 청년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길을 잃은 청년들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돌아올 곳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온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방공호가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YWCA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해진 저에게 활력을 불어준 것도, 코로나로 활동의 범위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YWCA였습니다. 많은 노력 덕분에 청년들의 방공호가 되어주는 YWCA만의 고유한 청년성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YWCA 공동체 속에서 리더로 성장한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사회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YWCA만의 청년성을 통해 많은 YWCA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어려움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NGO라는 YWCA의 특성을 살려 세계 여러 국가들의 청년들과 교류하고 협업함으로써 국제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YWCA 청년들이 국제사회를 이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YWCA 100주년, 더 나아가 200주년에도 고유한 YWCA만의 청년성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과 고백으로 드린 7월 월례아침기도회

|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디모데전서 6:11~12)

7월 월례기도회가 7월 1일(목) 오전 8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연합회 실행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월례기도회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11-12절의 말씀으로 이종임 실행위원의 인도로 원영희 회장을 비롯하여 정유진, 정혜원, 한미미, 함희경 실행위원들이 간증을 나눴다.

대전YWCA 회장 정혜원 실행위원은 대학교 때 경험한 YWCA를 어머니의 헌신과 봉사로 다시 새롭게 만났음을 간증하였고, 정유진 실행위원은 인생 20대에 YWCA 4단계 지도력훈련에 참여하여 YWCA에서 대학Y간사로서 대학Y 재건을 위해 보낸 시간 속에 자신의 성장과 한계를 알게 되었고 그 힘으로 이제껏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했다. 원영희 회장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로마서 12장 첫 구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YWCA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했다. 한미미 실행위원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YWCA를 만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다. 함희경 실행위원은 대학생 때 세계Y 100주년 서밋의 봉사자로 만난 YWCA에서 귀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과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앞으로의 후배 세대에게도 전승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간증 시간 후에는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맞춰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는 한국YWCA가 되도록 기도했다. 월례기도회는 100주년을 준비하는 한국YWCA 기도운동의 일환으로 2022년 4월까지 매월 연합회 실행위원들과 신청한 회원YWCA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출범, 임시총회에서 100주년 향한 새로운 구조개편안 통과

한국YWCA100주년, 한국의 '기독교' '여성' '시민운동'의 100년 100주년 준비단 출범식 후

(사)한국YWCA 연합회 임시총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7월 8일(목)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출범식을 열었다. 2022년 4월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한국YWCA연합회는 한국의 기독교 운동, 여성운동, 시민운동 1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은 '세대를 아우르고 역사적 유산을 이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지로 김숙희(한국YWCA 연합회 전 회장, 전 교육부 장관), 서다미(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회장),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3인이 공



청년을 키워드로 Beyond 100, YWCA의 미래를 열어갈 100주년 준비단 공동위원장

동위원장을 맡고, 고문단과 자문단, 준비위원회 외에도 청년참여단을 별도로 두어 '청년'을 키워드로 새로운 시대 Beyond 100, YWCA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선포했다.

'지역, 청년, 회원' 중심의 구조, 운동성 강화하고 지역분권 확립

한국YWCA연합회는 올해 초 '지역, 청년, 회원'을 중심으로 100년을 넘어서는 YWCA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운동성' 강화와 '지역 분권' 확립을 목표로 새출발을 선포한 바 있다.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출범식은 7월 8일(목) 오후 6시 4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전국 52개 회원YWCA 대표단과 100주년 준비단 청년위원장인 서다미 회장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준비위원단 구성 소개와 3인의 공동 준비위원장의 '한국YWCA100주년, 비전과 바람'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김숙희 100주년 준비 공동준비위원장은 "과거에는 Y에서 스승이나 어른에게 배우는 것으로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하면서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왔으나, 지금 시대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지식과 경험 세계를 통해 성장한 리더들이 모여 YWCA를 통해서 스스로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 변화를 이루었으면 한다"면서 "청년들이 만드는 '발달한 YWCA'가 되면 좋겠다"고 준비단 발족에 기대를 밝혔다.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회장이자 전주YWCA 소



속 청년활동가인 서다미 공동준비위원장은 "YWCA 힘의 근원은 '청년'이다. 청년들이 리더십을 기르고 성장하여 국제기구로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YWCA가 좀 더 글로벌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영희 공동준비위원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한국YWCA 목적문 정신, 개혁 정신을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한 주창 활동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속하고 확대하는 YWCA가 되길 바라며, 특히 청년회원이 더 많아지고 변화를 이끄는 YWCA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구성 13인의 100주년 준비고문단, 자문단, 준비위원회 외 청년참여단 별도 운영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구성에는 고문단으로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회원 13명으로, 자문단으로는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YWCA내·외부 인사들로 구성했다. 100주년 준비는 기독교, 여성, 청년, 미래, 세계 시민이란 키워드 아래 청년성, 자치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가치에 두고 앞으로 100주년 기념 역사 편찬과 기념우표 제작, 100년 화보집 발행과 연합회 건물 8층에 역사관과 채플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100주년 기념사업으로는 100주년 비전을 새로이 선포하고 엠블럼 제작, YWCA회가 공모 등 회원과 시민 참여형 활동을 기획하여 실행하게 된다. 또한 청년참여단을




구성하여 청년 글로벌 리더십 네트워크(온라인) 구축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임시총회 개최,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구조개편안 결의 국내 NGO단체 최초 청년부회장 제도 신설, 실질적인 청년대표성 강화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출범식에 이어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사)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온라인)에서는 150여 명의 총회원들이 참여하여 100년을 맞는 전국단위 NGO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결단했다.

기존 연합체의 의사결정구조인 총회 구조는 공정한 절차와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직무상대표와 의결권 등을 정비하고, 이사회는 연합단위와 지역의 참여 비율이 7:3이었던 것을, 연합단위 3.5: 지역 3.5: 청년 3의 비율로 지역과 청년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상향하는 안건과 청년부회장 제도를 신설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법인의 사업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집행 책임과 청년의 관점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부회장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한국YWCA의 운동 및 운영 정책 수립에 청년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는 100주년을 '지역' '청년' '회원' 중심의 구조로 정비하고, 지역 분권화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100년 이후에도 지역 중심의 시민운동체로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 3인의 비전과 바람을 듣다

김숙희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공동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전 회장



회원YWCA, 52개의 YWCA, 그것이 한국YWCA입니다. 100년을 향하는 YWCA를 향해서 그 많은 회원이 YWCA를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셔서 100년에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YWCA가 1922년에 북경에서 만국학생, 기독교학생 회의가 있어서 김활란 박사께서 학생 대표,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1922년은 일제강점기 하에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호도 쓸 수가 없었는데, 김활란 박사가 참석하셔서 만국학생회의에서 소리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YWCA 대표들이다, 대한민국의 YWCA가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부터 YWCA는 한국에 가서 YWCA 운동을 활발하게 할 것이다” 한국의 대표 김활란 박사는 당당하게 ‘우리 YWCA는 한국의 YWCA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씨가 되어 오늘 날 이렇게 수많은 회원이 전국에 퍼지도록, 우리 YWCA는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해왔어요. YWCA는 옛날부터 어린 사람들은 어른을 모시고, 후배들은 YWCA를 배우는 입장에서 많이 훈련도 받았고, 어른께 많은 것을 여쭙보고, 그런 사회를 지내왔어요. 이런 것이 아마 과거 YWCA 100년의 전통이었을 거예요. 김활란 박사 이후에 많은 지도자들이 지나가셨지만 아마 그중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에스터 선생님이 한국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YWCA 활동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에스터 선생님의 그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도 마음 깊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21년, 시대가 100년이 지나고 보니 1922년의 한국 사회와 2021년의 한국 사회는 많이 변했음을 실감해요. 그리고 변하기도 해야 해요. 아무래도 세대가 달라

지고 배움이 달라지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가 달라지고 과거에는 제자들은 그 선생님의 지식을 배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식이 만방에 다 공표가 되고, 지식을 모두 찾아내는 인터넷 기기들이 상당히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모든 지식을 찾아내는 그런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발달하게 자라날 수 있는 ‘발달한 YWCA’를 만들어야 돼요. 과거에는 지도자 양성을 YWCA가 주로 해왔지만 지금은 Y에 온 사람은 너도 나도 어른도 아이도 선생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YWCA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Y를 이끌어 나가는 데 이제 ‘모든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YWCA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YWCA는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YWCA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항상 Y는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의 Y도, 또 앞으로의 YWCA도 변화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변화에 앞장서는 YWCA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문에 누구든 다 지도자 입장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회원들이 되어 사회에 공헌하는 YWCA가 되면 참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작은 지도자가 모여서 큰 지도자가 되는 Y로 향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100년, YWCA는 밝은 미래를 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다미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공동위원장
한국YWCA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 서다미입니다. 한국YWCA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 YWCA 100주년 중에서 올해 7년째 함께하고 있는데, 그 7년을 100주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YWCA를 100주년까지 이끌고 올 수 있던 힘의 근원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YWCA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좋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로 열심히 성장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이 한국YWCA의 굉장한 자랑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면서 청년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YWCA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YWCA의 청년들이 실무자 또는 이사·위원으로 YWCA에서 성장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YWCA를 함께 이끌어 가주시고 지탱해주시는 분들이 실무자분들과 위원인 만큼, 그 시

작이 되는 청년들이 아마 YWCA 힘의 근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도 청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청년Y가 100주년을 넘어서까지 YWCA에서 함께하고 싶은 일은, 100년 동안 대학·청년YWCA 내실화를 꿈꾸고 달성했다면, YWCA가 세계적인 기구라는 특성을 살려서 세계적인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YWCA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미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일YWCA청소년협의회나 대학·청년YWCA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도지원TF팀처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세계적인 청년들과 함께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대학·청년YWCA,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학·청년YWCA에서 한국의 많은 여성 청년들이 미래를 이끌 리더로 성장하고 사회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영희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공동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회장

YWCA 100주년 준비를 위한 공동위원장 원영희입니다. YWCA를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면이 몇 개 있습니다만, 특별히 10만 회원들을 생각하면 가장 마음이 푸근하고 자랑스럽습니다. 10만 회원들을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각자의 자리에 세워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정말 로마서의 말씀처럼 YWCA를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창 운동입니다. YWCA는 지난 100년 동안 끝없는 이슈를, 사회적 이슈, 사회 문제들을 깨닫고 인식하고 주창 운동으로 삼아 오늘까지 끊임없이 여성의 권리와 그리고 또 사회의 정의, 평화, 생명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주창운동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왔다는 부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 돌봄노동법(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도 드디어 통과시키는 귀한 쾌거를 이루었는데, 탈핵운동으로도 고리1호기 영구 폐쇄를 결정하도록 이끌었고, 환경과 생명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슈 개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부분에 참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YWCA가 바라는 바는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성'입니다. 이 청년성이 그동안 많이 약화됐는데 앞으로 100년의 세월에는 YWCA의 50퍼센트 회원이 청년으로, 20~30대 청년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단에 청년 부회장을 세우기로 마음을 모았습니



다. 정말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는데, 많은 Y의 청년들이 다음 100년 동안 YWCA를 향해 달려오는 그러한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세대들은 열심히 격려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WCA의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선배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역의 결실을 맺어왔는데 과연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답으로 얻은 것은 '개혁정신'이었습니다. 개혁적인 도전정신.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YWCA는 부속시설 정비를 위해서 수많은 부속시설 조사에 들어갔고, 많은 개혁과 변혁의 요소가 발견되어 구조개편을 실시했고, 모든 지역YWCA를 시작으로 연합회도 개혁의 선두에 서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2021년 현재는 구조개편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정신이 우리 YWCA를 오늘까지 이끌 수 있던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정신은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개혁 정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이 우리가 삶에 실천하는, YWCA 목적문에서 나오듯이 우리 삶에 실천하는 계기가 바로 개혁 정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YWCA는 특별히 세계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계 속에서 하나의 세계 공동체로서 개혁 운동을, YWCA 운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자를 돕기 위한 세계적인 이슈도 앞장서서 개발하고 많은 청년들이 현장 체험을 통해서 세계적인 일꾼이 되고, 다시 또 그 노후를 한국 YWCA의 발전에 활용을 하는 한편, 한국 YWCA의 이슈를 세계적인 이슈화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100년은 청년 50퍼센트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YWCA, 한국YWCA의 이슈가 세계 이슈를 이끄는 그런 YWCA로 지속 성장·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매순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

수상 소식

한국YWCA 창설자 김필레 선생 광복절 건국포장 수상 민족의식 교육 통한 민족계몽운동 헌신



- 엄혹한 시기 기독교 여성 교육 활동가로서 여성교육권 강조, 민족자립교육 앞장서
- 독립운동을 위한 치치하얼 이상촌, 정신여학교, 광주여성야학교 교사로서 민족의식교육을 통한 민족계몽운동, 자립적 교육 바탕 애국애족운동 헌신
- 국비장학생으로 일본유학에서 경험한 YWCA활동으로 1922년 한국YWCA 창설, 한국YWCA와 광주YWCA 초대총무로서 기독교 청년 여성을 위한 교육현장 마련
- 3.1만세운동 참가와 신사참배 거부로 옥살이, 광주수피아여자학교 정신여학교 폐교
- 광복 후 여학교 복교 정상화에 기여, 실천적 기독교여성교육자로 헌신적 삶 살아

창립 99주년을 맞은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에 제76회 광복절에 의미있는 수상 소식이 있다. 1922년 엄혹했던 일제 암흑기에 조국 독립과 여성해방을 위해 횃불을 켜 3인의 창설자(김필레, 김활란, 유각경) 중 김필레 선생이 광복절에 건국포장(建國褒章, National Foundation Medal)을 수상했다. 한국YWCA 창설자인 김필레 선생이 실천적 기독교여성으로서 여성교육과 민족자립교육 활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과 건국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건국포장 수상은 김필레 선생(1891-1983)이 일본유학에서 돌아온 후 1916년부터 독립운동을 위한 중국 치치하얼이상촌, 정신여학교, 광주여성야학 등의 교사로서 민족의식 교육을 통한 민족계몽운동에 적극 헌신한 공적으로 수여되었다.

3.1 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문은 조카인 독립운동가 김마리아가 김필레 선생의 광주자택에서 복사하여 서울로 가지고 간 것으로 선생에게 역사를 배운 정신여학교 학생들은 1919년 3월 5일 대한문 앞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한편, 김필레 선생이 광주 수피아여자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1937년에는 신사참배 거부 명목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광복 이후에는 조국 독립의 기쁨을 여학교의 복교를 통해 열매 맺었으며, 이후 평생을 기



맨 왼쪽이 김필레 선생

독교 여성교육자로 헌신하였다. 1950년 후에는 광주YWCA 총무로 활동하며 주체적인 여성교육의 현장을 이끌고 한국의 기독교 여성운동의 태동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여성으로서의 자아 주체성을 강조하고 신앙을 근간으로 평등교육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까지 여성의식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국비유학생으로 일본 유학생회에서 경험한 YWCA 활동을 통해 1922년 한국YWCA의 창설자 중 한 사람이 된 김필레 선생은 한국YWCA 초대총무로서 한국YWCA연합회 조직의 근간을 갖추고 북한의 YWCA를 포함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조직에 힘쓰는 등 YWCA를 통해 실천하는 기독교 여성의 소명을 감당하였다. 🙏

생태 슬픔(Eco Grief)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우리 모두의 집이 불타고 있다

청소년 기후행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 모두의 집이 불타고 있다”고 절박하게 외친 그 대로 지금 이 지구의 곳곳이 불타고 있다.

북아메리카는 물론이고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유럽 국가들이 마치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 같은 엄청난 규모의 산불로 타오른다. 그리고 그 기후위기가 몰고온 재앙의 불은 ‘동토의 땅’이라는 자동 수식어가 붙은 시베리아마저 다 태울 듯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이 끔찍한 화재들로 인해 지구상에서 배출된 탄소량이 3억 4천3백만 톤이나 된다고 한다. 물론 어마어마하다 해도 그 규모를 측량할 수가 없다. 아무튼 관측 이래 산불로 인한 최고의 배출량이다. 그뿐 아니라 탄소보다도 86배나 많은 온실효과를 가져오며 기후변화의 뇌관이라 부르는 ‘메탄가스’가 그린란드와 시베리아 등 영구동토층에서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견잡을 수 없이 배출되고 있다.

지구 곳곳이 불타는 반면, 또 지구 여러 곳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태풍과 홍수가 밀어닥쳐 평범한 이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재난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독일이나 일본도 그 엄청난 재앙에서 비껴가지 못했다.

산불로 숲들이, 마을이, 자신의 집이 타들어 가는 것을 보고 절규하는 그리스의 노인을 보라. 폭풍과 해일, 해수면 상승으로 오랫동안 살던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정처없는 피난 길을 떠나는 방글라데시의 여인들을 보라. 홍수에 떠내려 가며 살려달라 절규하는 수많은 중국의 민중들을 보라. 지

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재앙이 우리를 비켜 간 것에 우리는 얼마나 안도할 수 있나? 그래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운이 좋았다고 자위할 수 있을까?

생태 슬픔과 기후 우울

지구라는 우리 모두의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과 이윤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 압도적인 위기상황에 대해 심각한 무력감만 느끼고 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가 몰고 온 심각한 위협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스크 줄을 가위로 자른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이용하지만,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 더디다. 얼마 전 기후위기의 ‘최후 방어선’이라 했던 지구 온도 1.5도 상승 시기가 10년 남짓 앞당겨질지 모른다는 더욱 암담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난 7월 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는, 1.5°C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2018년에 발표된 ‘제5차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2030~2052년보다 훨씬 더 앞당겨진 것이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코로나 상황도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위기의 양상은 도처에서 재앙급으로 전개되는 것을 마주하며 사람들은 깊은 우울과 절망을 느낀다. 청년들은 지독한 경쟁에 내몰려 취업을 위해 분투한다 해도 자신들에게 내일이 있을까 회의하며 자신들이 어쩌면 인류

의 마지막 세대들일지도 모른다고 비탄한다. 얼어붙은 땅이 녹아버리는 바람에 사냥으로 생계를 잇던 전통적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이누이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존재를 뿌리 뽑힌 채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가야 한다. 땅과 동물과 짐승들을 산불로 몽땅 잃은 터키의 농부들도 기후난민이 되어 살 곳을 찾아 전전해야 한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생물들의 죽음과 함께 조상 대대로 삶을 영위해온 터전을 잃은 사람들, 어렵게 일구어 삶을 송두리째 박탈당한 사람들, 그들의 깊은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후재앙과 생태파괴를 목도하는 이들에게도 이 슬픔은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 예감과 함께 고스란히 전해진다.

심리학자들은 기후재앙 시대의 수많은 죽음과 파괴를 겪고 그 현장을 목도하는 사람들이 겪는 슬픔과 상실감, 분노, 만성적 두려움 등의 감정들을 ‘생태 슬픔(Ecological Grief)’, 혹은 ‘기후 슬픔(Climate Grief)’, ‘기후 우울(Climate Depression)’이라고 명명한다. 그 슬픔의 현상은 단지 막대한 재앙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탄저병으로 짓물러진 고추를 눈물로 수확하는 농부들에게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에어컨 전원버튼을 누르는 시민들에게도, 기약없는 코로나 사태로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 도시 자영업자들도 모두 ‘생태 슬픔’을 가슴에 안고 일상을 살아간다.

생태 슬픔을 넘어 새로운 전환의 길로

하지만 이런 생태 슬픔은 재앙을 목도할 때보다도 오히려 그 재앙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저 남의 일로만 여기는 무관심 속에서 더욱 증폭된다. 위기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경제성장’의 판타지를 확산하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기후위기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만 바라보는 재난자본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선동질에 편승하여 당장의 편리함을 좇는 사람들.

생태 슬픔은 우리에게 무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절망과 무력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생태 슬픔이라는 인류의 집단적 심리는



산불로 비통해하는 그리스 여성, <가디언>지, 2020, 8.10

당장 시급히 실낱과도 같은 희망을 찾아 함께 길을 나서라는 의미일 것이다.

실화를 기반으로 1993년에 만들어진 재난 영화 <얼라이브>에서 안데스 산맥의 눈덮인 산에 추락한 럭비팀 대원들은 70여 일이나 지난 후 기적적으로 구출된다. 이런 믿을 수 없는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희망’을 찾아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막막한 눈 덮인 안데스 산맥 어딘가에는 반드시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펼쳐지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끈질기게 찾아나선 한 사람 때문이었다. 슬픔과 절망에 압도당하여 길 찾는 그를 몇몇 동료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할 때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사력을 다해 길을 찾아 나선 그가 마침내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생태적 슬픔은 우리를 압도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새로운 전환의 길로도 이끌 수 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며 행동에 나설 때 말이다. 레베카 솔닛은 그의 책 <어둠 속의 희망>에서 이렇게 썼다. “희망하는 것은 도박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미래에, 당신의 욕망에, 열린 가슴과 불확실성이 암울함과 안정보다 나올 가능성에 거는 것이다. 희망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산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기에, 희망하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다.” 그렇다. 생태 슬픔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위험에 나서게 한다. 🌱

여행지가 아닌 여행처럼 사는 군산

김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주)로컬프렌들리 대표



YWCA청년들로 구성된 로컬프렌들리는 지역 재생과 청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험적 도전을 하기 위해 2019년 군산으로 파송됐다. 4회에 걸쳐 군산으로 떠난 YWCA청년들의 이야기가 연재된다.

소멸 위기의 군산, 제조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전국 시군구의 46%가 30년 뒤 소멸될 위험이 있다. 지방소멸 위험은 더 이상 다음 세대가 경험할 미래의 문제가 아닌 수많은 지역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2017.7.1), 한국GM 군산공장 폐쇄(2018.6.1) 등으로 인해 군산 역시 지역경제 위기에 처했고, 지방소멸가능 도시로 꼽혔다. 최악의 지역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관광지육성사업을 함께 시작했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수립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했다. 주로 원도심의 근대화유산을 활용하여 군산을 관광도시로 개발하였고, 2018년 약 515만명의 관광객 수를 돌파했다.

여행으로 왔지만 여행으로도 오지 않을 군산

지역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군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군산이 지닌 '일상의 스토리'와 '본래의 가치'는 잊혀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군산 여행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따라 붙는 연관검색어가 '당일치기 여행지'다. 군산 여행 콘텐츠가 대부분 눈으로 보고 그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속

박 형태로 체류하면서 지역의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연계형 여행 콘텐츠는 부족하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위 말해 '핫'하다는 군산의 명소를 살펴보면 카페, 중식당, 맛집 등과 같이 짧은 시간에 한끼 식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악순환은 군산이 당일치기 여행객이 원하는 장소로 맞춰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일치기 일정에 따라 낮에만, 주말만 운영되는 곳들이 늘어났다. 사람으로 가득했던 주말의 원도심은 오후 3시 이후 노란색 빵 봉투와 함께 썰물 빠지듯 사라진다. 관광도시의 안정적 성장과 운영을 위해서는 재방문객 비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수적이지만, 군산을 또 방문할 것이냐는 물음에 많은 사람이 '한번 올 곳,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마을이 호텔이 되는 커뮤니티호텔

체류는 곧 소비다. 국내 관광여행에서 재방문 의사에 '숙박시설'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군산 원도심의 숙소들 대부분이 당일치기 혹은 잠만 자는 여행객을 위한 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정주인구가 줄고 낮



① 밖에서 본 커뮤니티호텔 후즈넥스트 모습
② 커뮤니티호텔 후즈넥스트 2층 도미토리 내부 모습
③ 여행자와 지역민을 잇는 커뮤니티호텔

과 주말에만 운영되는 '관광지화된 마을'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 여러 가지 문화가 깃들여 '여행처럼 사는 마을'이 될 방법을 연구했다. 환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 Touch)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숙박형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호텔'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마을이 호텔이 되는 커뮤니티호텔은 기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에 '로컬'과 '커뮤니티'라는 키워드를 더한 개념이다. 투숙객이 자연스럽게 로컬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쿠폰'과 '마을지도'를 제작하여 로컬 식당, 펍, 카페, 샵 등을 연결한다. 여행자들이 단순소비와 표면적인 관광지지만 군산을 만나지 않고 지역과 현지 커뮤니티와 연결(link)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순소비보다 여행지에서의 '일상의 장면'이 더 기억에 남는다.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여행자를 초대하고, 그렇게 지역에 속해보았던 경험이 연결고리가 되어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다시 찾고 싶은 동기를 부여한다. 도시의 관광화가 아닌 리빙화를 통해 생활터전과 그곳의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서 여행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한다. '유명 여행지'가 아니라 '여행처럼 사는 마을'이 되도록 한다.

여행에서 지역재생으로

'여행은 살아보는거야!' 현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현지 커뮤니티 행사와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에어비앤비

의 캐치프레이즈(광고, 선전 따위에서 남의 주의를 끌기 위한 문구나 표어)다. 여행자를 지역민과 연결하고 지역에 참여시킴으로서 특별한 기억을 심어준다. 앞서말한 군산의 지역적 특징과 배경을 바탕으로 로컬프렌들리는 지역재생을 위한 비즈니스를 고민했다. 우리는 '지역재생'과 '커뮤니티(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형 비즈니스를 기획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청년을 필두로 한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의 을지로 등을 비롯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많은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들 사업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항상 싸늘하게 식어버린 청년마켓이 되어 버린다. 도시재생과 재개발에서 투기꾼과 건물주만 배부르게 하는 불평등만 남는 것이다.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 수리, 도로정비 등의 하드웨어적, 지원금 중심의 사업추진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모여 살게 할 것인가'의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즉, 건물 경제 차원의 재생에서 나아가 문화 재생까지 나아가야 한다. 커뮤니티호텔을 통해 군산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계속해서 군산에 올 수 있도록, 나아가 여행처럼 사는 지역의 일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루를 여행해도, 하루를 사는 것처럼 군산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즐거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간다. 여행지가 아닌 여행처럼 사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주린이 이야기



| 대학·청년YWCA

최근 몇년 사이 집값이 하늘로 치솟으며 많은 청년들이 이 정도의 소득으로는 집을 사기는 커녕 전세도 못산다는 말을 많이 한다. 열심히 일을 해도 부동산을 갖지 못하는 청년들은 아무리 모아도 답이 없는 은행 적금대신 주식, 코인, 복권 등에 눈을 돌리며 일명 '한탕'을 노린다. YWCA 청년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온라인 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2030 불나방 투자자

사과 : 요즘 개미투자, 주린이, 동학개미운동¹⁾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너네도 주식 해?

포도 : 나는 아직 학생이라 많이는 못하고 삼전 주식 조금 샀어

사과 : 나는 원래 주식에 회의적이었는데 요즘 전부 다 주식 주식 하나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몇 개 사봤어.

딸기 : 나는 얼마 전에 도시코인했다가 크게 잃었다.

사과 : 코인은 공부 진짜 많이 해야 한다면 너 관찮아?

딸기 : 안괜찮지... 나는 실업급여 전부 코인했다 말이야... 너 무 후회해.

포도 : 실업급여로 주식이나 코인할 수 있어?

배 : 몰랐어? 요즘 실업급여 받는 동안 주식해서 수익이 생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냐는 질문 엄청 올라온다잖아.

딸기 : 고용노동부에서는 주식은 불로소득이라서 부정 수급에 해당이 안된대.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그 돈으로 주식했지.

사과 : 너는 진짜 간도 크다.

딸기 : 나는 한탕을 노린다니까.

사과 : 그래도 실업급여는 취업 준비하라고 주는 돈인데 주식하는 건 좀 그렇다...

배 :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실직하니까 다들 주식이나 코인으로 한탕하려고 하는거 같아.

사과 : 요즘 빚내서 투자한다는 '빚투'라는 말도 유행이잖아. 오죽하면 나는 요즘 주식 안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다니까?

포도 : 뉴스에서는 우리보고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더라.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려운 모든걸 잃어버린 우리 세대가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은 주식이지.

저축은 왜 안해?

사과 : 어릴 때부터 드라마나 부모님 통해서 주식은 손도 대는 거 아니다, 주식으로 가정 파탄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아?

배 : 맞아. 그래서 어릴때부터 티끌모아 태산 이런 이야기들으면서 저축해야 한다고 많이 들었지.

포도 : 꾸준히 돈 모아서 내집 마련하는 게 최고의 성공이라

고 생각했는데 우리 죽기전에 집을 살 수 있는거지...?

딸기 : 집 못 살걸? 요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억 4천만원이래. 말이 돼?

포도 : 와... 미쳤다.

사과 :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청년들보고 적금하라고 이것저것 복지혜택을 주는데 사실상 대상이 되는 것부터 너무 까다로워.

배 : 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들었는데 그것도 이번 해까지만 받아주고 더 이상 안받아 준다고 하더라.

포도 : 나는 '희망키움통장' 제도 찾아보고 가입하려고 했는데 지원계층이 중위소득 30% 이하인데 근로활동을 못하는 청년만 할 수 있더라고.

딸기 : 평범한 청년들이 들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해? 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안들어 준다고 하더라.

포도 : 그게 뭐야?

딸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하려고 하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우리가 2년 동안 매월 10만 원 정도 적금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 원을 적립해서 만기가 되면 1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이것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배 : 나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5인 이하 기업이라서 가입 대상이 안된대.

포도 :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되면 누가 혜택 받는 거야? 내 주변에 혜택 받았다는 사람 본적이 없어.

딸기 : 평생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가입하려면 회사에서 승인도 해줘야 하고, 재취업자의 경우 6개월 동안 일을 쉬다가 재취업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 기간 동안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도 혜택을 못 받아.

포도 : 와우... 이걸 혜택 받은 사람한테 박수쳐줘야 할 수준인데?

시드머니 교육

배 : 솔직히 이제는 저축이나 하라는 말도 안된다고 봐.

나도 주식으로 한탕하자! 이런 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 공부는 필수야.

사과 : 완전 동감. 몇년 전만해도 친구들이 주식한다고 하면 그냥 저축이나 하라고 왜 위험하게 주식하냐고 했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주식 공부하고 싶다.

포도 : 나는 지금도 잘 몰라. 그래서 회사 사람들끼리 경제동아리 만들어서 주식에 관심 많은 분한테 간단한 교육도 받고, 어떤 은행 쓰면 좋은지도 배웠어. 매도, 매수라는 기본적인 단어부터 공모주 사는 방법도 배우고 있어.

사과 : 좋다. 나는 유튜브 보면서 혼자 공부하려고 하니까 단어도 너무 어렵고, 어떤 주식 사라고 홍보하는 게 대부분이라 별로더라고. 책은 더 어렵고. 나도 누가 좀 알려줘라!

배 : 우리는 어렸을 때 주식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 근데 요즘은 조기 주식 교육을 시킨대.

사과 : 맞아. 우리는 어릴 때 용돈 받으면 은행가서 통장 만들어서 저축부터 했었잖아. 요즘 애들은 부모님이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시드머니주고 주식 경험해보라고 한대.

딸기 : 와... 진짜 다른 세상이다. 나도 어릴 때부터 조금씩 해 봤었으면 한탕 주식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해보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포도 : 그때 삼전 샀으면 지금쯤 난 엄청 부자겠지?ㅋㅋㅋ

배 : 미국에서는 금융 습관을 길러주는 어플도 생겼대. '그린라이트'라는 어플인데 부모님이 어플로 용돈을 주고, 이자율을 조절하는 방식이래. 착한 일을 할때 용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높여주는 방식을 이용해서 경제 공부를 하게 하는 거지. 아이들이 그걸로 기부를 하기도 한대.

딸기 : 우리도 안 늦었어. 이참에 YWCA안에서 청년 주식동아리나 경제동아리 만들어 볼까?

모두 : 오 좋아! 🙌

1)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식 시장에서 등장한 신조어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상황을 1894년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표현이다.



“평등으로 가는 길, Road to Equality”

성평등 이슈 토론회를 통해 한국YWCA 2022 대선 정책 의제 이끌어내

이한빛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한국YWCA 연합회 성평등운동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성평등 월간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성평등 월간 토론회는 성평등 이슈에 관심이 있는 연합회 및 회원YWCA의 이사, 실무활동가를 모집하여 시작하였으며, 현재 7월까지 3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다뤄진 토론 주제와 내용은 성평등 대선정책TF위원회의 기초 자료가 되어, 한국YWCA 대선 정책 의제에 반영된다.

5월 성평등 월간 토론회: Covid-19와 여성 이슈

5월 성평등 토론회는 'Covid-19와 여성 이슈'를 주제로, 제6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자들이 세계 성평등 이슈를 공유하고 각 이슈와 관련하여 지정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자였던 오영란(연합회 탈핵기후생명TF 위원), 이한빛(연합회 성평등운동 담당 간사), 김은경(연합회 성평등 책임위원)이 각각 '기후위기와 여성', '젠더폭력과 안전한 공간', '여성 및 청년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수진(연합회 대학청년 담당 간사), 김에리(서울YWCA 여성운동국 부장), 장은정(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센터장)이 지정 토론을 진행했다.

5월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당면한 과제들을 공유하고, 한국YWCA 운동과 연결해보는 시간이었다. 한국YWCA의 국제 회의 참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YWCA 운동과의 접점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 또 한국YWCA 운동이 전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6월 성평등 월간 토론회: 기후위기와 젠더

6월 토론회는 '기후위기와 젠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윤경효 이사(여성환경연대)가 '젠더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그룹별 토론,



전체 나눔이 이어졌다. 그룹별 토론은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YWCA가 전개해야 하는 성인지 바탕의 기후운동과 관련하여 대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국YWCA가 전개해야 하는 성인지 바탕의 기후운동'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여성의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아동/청소년/일반인 등 각각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젠더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 YWCA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위기 역량 강화, EM 운동의 확산 등이 논의되었다. 이어서 대선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여성의 차별적 현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 기후위기 영역에서도 성별 영향이 지표로 분리된 통계의 필요가 논의되었고,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사라지는 여성일자리에 대한 대안, 기후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별격차와 관련된 정책, 더 가중되고 있는 여성의 돌봄 노동 등과 관련한 정책 제안이 논의되었다.

7월 성평등 월간 토론회: 젠더와 대선 정책의제

7월 성평등 토론회에서는 '젠더와 대선 정책의제'를 주제로 보다 더 심도 있는 대선 의제 토론이 진행되었다. 생각을 여는 발제-조별 토론-전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 책임위원의 '생각을 여는 발제' 후 참여자들은 발제 내용과 관련하여 조별로 YWCA에서 하고 있

는 일, 요즘 관심있는 이슈, 한국YWCA가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 등에 대해 나누었다.

먼저 한국YWCA에서 하고 있는 활동 나눔을 통해, 전국에 있는 회원YWCA 운동 현상이 얼마나 다르고 이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성차별과 성평등에 대한 지역의 인식 차이에 따라 각 회원YWCA가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과제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 이에 따라 실무활동가들의 운동 접근 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최근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여가부 폐지 논란, 백래시, 온라인 성폭력 등의 문제가, 한국YWCA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개할 운동에 대한 토론에서는 지역에서의 성평등 문화 정착, 여성의 돌봄 노동,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여성과 남성 청년을 위한 성평등 운동 등이 논의되었다.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운동에 대한 토론에서는 차별금지법이나 섹슈얼리티 등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 여성이자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 여성의 의제를 다루는 것, 가족 다양성 포용, 성범죄 피해자 회복, 학교 내 디지털 폭력 문제, 일·생활 균형 제도의 현실적인 적용, 여성들의 의견을 더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과감하고 즉각적인 기후변화대응실천	· 온실가스 50% 감축 선언
성인지 공정 에너지 전환	· 저소득 여성의 경우, 에너지빈곤 위험성 높음, 성평등 고려한 시민참여 과정을 통해 공평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추진.
유해화학물질 거부	· 생활용품의 화학물질로 인한 남성의 재생산 건강 위협,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 증대, 아동의 90%가 태어날 때부터 오염, 일상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규제 강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물	· 연형, 성별, 지역적 위치를 고려한 안전한 깨끗하며 지불가능한 물 사용의 사각지대, 많은 국가 사례를 보면, 농촌과 도시간 물 이용 접근에 큰 차이.
모두를 위한 생리대	· 친환경 생리대를 모두에게 공급, 생리대 세금 부과 및 친환경 대안 생리대 공급, 1회용 생리대의 생태적 처리에 책임을 산업계에 부과.
1회용 및 미세플라스틱 대응	· 과대 포장제 규제 강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100% 달성, 소비자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슬로우다운 패션	· 여성이 주로 봉사하는 패션업계에 대한 환경규제와 사회적 보호가 미흡, 산업계가 섬유폐기물 수거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 필요.
여성 쿼터	· 정부 및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급 여성이 부족, 특히, 에너지산업계 등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부문에서의 고위급 여성 수 확대 필요

6월 성평등 월간 토론회 중 중요 자료화면

피드백과 수정,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YWCA 성평등 운동

이번 성평등 토론회는 연합회 및 회원YWCA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매일 성평등 토론회 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피드백을 그 내용을 반영했다. 6월 토론회를 마치고 토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7월 성평등 토론회가 토론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참가하는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토론회라는 점에 의미가 컸다.

2021년 YWCA 성평등 월간 토론회는 앞으로 3차례 더 진행된다. 앞으로의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안될 성평등 정책 의제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며, 대선의 정책제안과 2022년 지방선거의 정책 제안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기도

매일 성평등 토론회는 기도로 시작했다. 첫 달에는 연합회 원영희 회장의 대표기도로, 6월과 7월에는 각각 '유트족의 기도',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여성시편 20편'으로 시작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자매 피조물들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갖지 못했던 여성들,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 성평등 월간 토론회, 대선 및 지방선거 운동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성시편 20편'을 나눈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기도 (여성시편 20편)

- 차별의 고난을 받는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여성에게로 참여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여성들에게 평등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 이 사회가 여성들의 사회적 공헌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성들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길 원합니다. 여성들의 바람대로 50퍼센트의 여성들이 모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 우리는 여성들이 평등하게 참여하게 될 때를 기다리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평과 정의의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니,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 우리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고,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 어떤 이는 정치를 남성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리거나 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힘입어 남성과 평등한 참여의 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곳곳이 나가겠습니다.
-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입법 활동 YWCA 주도로 이끌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지방세 감면 대상 제외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연명 요청

올해 9월 국회의원 입법제안으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3조에 해당하는 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입법 활동에 연명하고 싶은 단체(또는 개인)는 단체명(또는 개인 성함)과 담당자 성함, 이메일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 제안서와 추후 활동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활동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목적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활동 연명(단체 또는 개인 참여 가능)
- 연명 참여 마감일 :
 - 1차 마감- 2021년 7월 16일(금)
 - 2차 마감- 2021년 7월 30일(금)
- 전화 : 02-6952-4810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 메일 : renewywca@ywca.or.kr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지방세 감면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모임인 <약자의 눈>의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을,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병, 여성가족위원장)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코로나 4단계 상황으로 인해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여성단체를 대표하여 한국YWCA연합회 유성희 상임이사과 박동순 국장,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백옥선 상임대표,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노현진 상임대표,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상임이사가 참석하였고,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사

회사서비스지원과에서 참여하였다.

강득구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유성희 상임이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수성 설명

코로나상황 운영비 증가도 힘든데 지방세는 아불성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박동순 국장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가운데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일평생 가장 큰 위기 상황에 처한 폭력피해자의 치유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특성상 주거 공간의 환경과 안정성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보호 시



설의 공간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소재지가 외부에 노출되면 즉각 이전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폭력피해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비 부족한 시설에서 이전 비용은 물론 부동산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민간의 힘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방세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같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관련 시설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여성폭력피해자와 보호시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노현진 상임대표와 전국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백옥선 상임대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는 개인에게는 전쟁이나 지진 등 사회적 재난을 겪는 것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과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 시설내

에서 거주하고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간이 협소한 것이 심각한 현안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였다. 정부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거리두기와 격리 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거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부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여 시설 운영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생생하게 전했다. 특히 최근 입소자 중 아동이 학교 내 확진자가 나와 엄마와 자녀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으나 시설 내 격리 공간이 없어 임시로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공간 마련에 대해서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을 넓혀 이전한다 해도 이에 따른 지방세 부담이 따르고 실제 납부 능력이 없는 실정을 설명했다.

지방세 감면대상에 공익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 포함돼야
자유토론에서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상임이사는 “국

지역법인화 후 법인 책무성 검토해야

재정 건전성, 행정업무 이행 역량, 의결구조 안정성

박동순

(사)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국장

2021년 7월 8일 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에서 회원Y 재구조화 지원정책 중 지역법인 승인기준이 완화·조정되었다. 현재의 승인 기준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서면결의로 의결되어 지역법인화를 추진하는 회원Y에 대한 연합회 승인 기준으로서 지역법인화 후 법인 운영의 재정건전성, 법인 행정 업무의 이행 역량, 법인 의결구조의 안정성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것이었다.

이번 과정에서는 YWCA경남도협의회 정책 제안이 있었고 연합회에서도 다수 회원YWCA가 기존의 법인 승인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비법인으로 전환한 뒤에 추후 승인 기준 충족 후 다시 법인으로 재구조화 전환을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 이에 경남도협의회 제안된 내용을 전국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와 연합회 내부 협의를 거쳐 바로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다.

이번 「지역법인승인기준」의 조정으로 인해 지역법인화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원YWCA들은 현재 일부 기준이 미충족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구조화정책 기간 중에는 회원YWCA의 노력으로 충분히 법인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36개 YWCA가 2022년~2023년 재구조화 추진

지역법인화에는 더 많은 준비와 지원 필요

현재 조직혁신지원국에서는 8월 31일까지 임시총회의 기준 조정 이후 재구조화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YWCA의 재구조화 방향과 시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1년 8월

현재 지역법인화를 완료했거나 법인 승인이 완료된 YWCA는 총 14개 회원YWCA다. 아직 미진행된 38개 회원YWCA 중에 2개 YWCA는 2021년 10월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의 70%인 36개 YWCA가 2022년~2023년 중에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법인화의 경우 비법인사단 전환과는 달리 정관 및 기본재산, 법인설립 허가 절차를 주무관청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지원 노력과 회원YWCA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법인화를 진행했던 회원YWCA의 사례를 보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넘게 준비를 해왔고, 실제로 1년 여의 교육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연합회에서 전화 조사로 파악한 바로는 2022년~2023년 재구조화를 진행할 36개 회원YWCA중 3~5개 YWCA를 제외하고는 법인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법인화의 승인신청마감 시기가 각 분기 첫 번째 달 첫 주 월요일이고, 2023년은 당해년도 공익법인지정(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한을 고려해 1월과 4월까지 승인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6번의 승인 신청 시기에 평균 6개 회원YWCA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되어 승인 신청YWCA가 분기별 신청YWCA가 지금까지와 비교해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연합회에서 시기 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36개 YWCA 중에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회원YWCA가 2023년 1월과 4월에 신청 예정이라고 응답한 상황이다. 회

세와 달리 지방세 감면조항은 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 지자체나 주무부처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이 있다”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허들을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괄주의적 접근으로 공익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곳을 사후 관리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참석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가부가 미리 챙겼어야 하는 부분인데 미리 파악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여가부는 여성단체 입장과 동일하고 반드시 여성폭력시설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국무총리실 비서실에서 “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간 관련부처 회의를 주재하며 노력해 왔다”며 “시민사회비서관실과 협력해 꼭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폭력시설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들이 모두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년 일몰시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서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와 과장은 “현재 시행령의 일몰시한인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라도 국회의 합의가 있으면 개정이 가능하며, 경기도와 같이 법 개정 전에 여성폭력시설에 지방세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조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정부부처 협의해 대안 마련 당부

법개정안 마련 밝힌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7월 초 KBS 뉴스 보도를 통해 가정폭력시설의 세금폭탄 이슈를 접하고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을 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은 남다른 소명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곳이며 개인적으로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했던 활동가로서 코


로나시기에 미리 살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여가부가 책임지고 행안부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 반드시 여성폭력시설이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여성단체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시설에 대한 소급문제, 여성폭력시설의 종사자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중적인 처우 개선, 성폭력 가정폭력시설의 입소자중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재난지원금 및 생계비 지원의 선별과 격차의 문제 등이 함께 요구되었다.

한국YWCA, 여성폭력 피해자시설 지방세 감면 정책요구서 전달 법개정 통과 운동 전개 계획

이날 한국YWCA에서는 7월 한 달간 연명에 참여한 전국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시설 103개, 전국 시민사회단체 234개, 사회복지 시설 및 기타 47개, 개인 971명의 명단을 담은 <정책요구서>를 각 국회의원들과 부처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앞으로, 한국YWCA연합회는 ‘폭력피해 여성 지원시설 현안 긴급토론회_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논의’ 국회 토론회 이후 정춘숙 국회의원이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지방세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 전국 회원YWCA와 연명에 참여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본격적으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안양YWCA 쉽터는 긴급하게 공간 확장의 필요로 인해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8천5백만 원이 부과되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적극적인 협력으로 법 개정 전에 도세감면조례개정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아 ‘도세감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마쳤고 9월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지방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 전환 승인기준 개정전 (2020년 3월 총회 서면의결)

- 1. 영역별 현황평가 2개년 평균 항목별 3.5점이상
- 2. 이사수 15명 이상 (참여·회비 납부 확인)
- 3. 본부실무활동가 3명 이상 확보 (급여전액 본부책임)
- 4. 본부 자체회관 (활동공간) 확보
- 5. 최근 3년간 연합회 회비/상호협조금 납부(여부)
- 6. 근로환경의 안전성과 적법성 확보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충족, 실무자 근속수 확인 등)
- 7. 한국YWCA 부속시설 신(新)운영정책 준수
- 8. 연합회 조정여부 (현재 조정중이거나 3년 이내 조정 받은 여부가 있는 곳은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 판단)

법인 전환 승인기준 개정후 (2021.7. 8. 임시총회의결)


- 1. 영역별 현황평가 2개년 평균 합계 3.5점이상
- 2. 이사수 12명 이상 (참여·회비 납부 확인)
- 3. 본부실무활동가 3명 이상 확보 (급여전액 본부책임 2명이상)
- 4. 본부 활동공간 확보
- 5. 최근 3년간 연합회 회비/상호협조금 납부(여부)
- 6. 근로환경의 안전성과 적법성 확보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충족, 실무자 근속수 확인 등)
- 7. 한국YWCA 부속시설 신(新)운영정책 준수
- 8. 연합회 조정여부 (현재 조정중이거나 3년 이내 조정 받은 여부가 있는 곳은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 판단)

원YWCA 응답대로라면 실제로 법인화 전환을 위한 연합회의 지원이나 승인 절차 또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으로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에서는 회원YWCA의 법인승인 신청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기 위해 회원YWCA별 분석을 통해 조기에 법인화가 가능한 회원YWCA들에는 별도로 시기 조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합회의 회원Y 법인 준비 지원의 상담과 지원, 컨설팅도 회원Y별 맞춤형 실시간 상담 방식에서 도협의회 단위별 상담지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시총회에서 불가피하게 회원Y 재구조화 지원 방식이 변화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한 바 있다.


의사결정 단위와 법인 행정 의무 이행하는 본부 사무국의 책임성과 역량 중요


법인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으로서의 의사 결정 단위와 법인의 법적 행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본부 사무국의 책임성과 역량이다. 법인화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법인이 된 이후 총회 및 이사회 등의 법인의 결 구조가 취약하거나 혹은 행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전

문성과 실무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업무와 법적 규제 안에서 회원YWCA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화를 준비하는 회원YWCA의 이사회를 비롯해 본부 활동가들의 깊은 논의와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YWCA의 재구조화를 앞서 행한 회원YWCA의 선도적인 사례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비영리법인과 단체 활동을 둘러싼 법과 제도상의 미비와 모금과 기부 환경 및 비영리시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 과제들을 시민 운동 의제로 확산해왔던 의미 있는 일이었다. 재구조화 뿐 아니라 급변하는 비영리관련 법 제도 환경 속에서 회계 기준 정비, 기부금 관리 모금 환경의 변화, 회원 정비 등 회원YWCA가 맞닥뜨려야 하는 변화의 파도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은 YWCA뿐 아니라 모든 비영리조직이 당면한 과제가기도 하다. 하지만 YWCA의 저력으로 이러한 변화의 파도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에서 회원YWCA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새로운 창립100년 이후를 맞이하기를 기대해 본다. 

코로나 관련 인도주의적 지원 시급 장기적으로 직업 훈련과 평화 교육 계획

2021년 7월 12일, 한국YWCA연합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바라는 국내외 에큐메니컬 단체들과 함께 '버마-미얀마 플랫폼(Burma/Myanmar Platform)'을 발족했다. 버마-미얀마 플랫폼은 군부정권에 저항하며 민주화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시민들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으로 한국YWCA연합회를 포함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일본교회협의회, 대만장로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북미 아시아 태평양 포럼, 연합교회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코로나19 관련 인도주의적 지원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 및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 평화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일본교회협의회, 대만장로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북미 아시아 태평양 포럼, 연합교회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코로나19 관련 인도주의적 지원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 및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 평화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버마/미얀마 플랫폼 선언문 |

“미얀마의 민주화와 희망을 되찾기 위하여”

버마/미얀마 시민과 함께하는 “버마 플랫폼”의 출범은 미얀마 시민들의 생명을 박탈하고 안전을 파괴하는 현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한 응답이다. 버마 플랫폼은 아시아를 넘어 북미의 종교 시민사회, 그리고 버마/미얀마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현재 잔혹한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투쟁하는 버마/미얀마 시민들을 기억하며, 이들의 목숨을 건 저항에 경의를 표한다. 분쟁과 군사지배 없는 미래를 향한 버마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은 잊혀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투쟁은 몹시 힘들고 고된 여정이 될 것이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군부는 끊임없이 내전을 일으키며 권력과 지배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 왔다. 이는 군부가 2020년 11월 8일 실시된 버마 총선을 통해 시민이 택한 정부를 거부하고 선주민 공동체를 끊임없이 탄압하는 행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버마/미얀마 시민들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버마/미얀마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에큐메니컬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버마/미얀마를 위한 국제 사회의 즉각적인 연대 행동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국제사회가 버마/미얀마 군부가 지난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권력을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소수민족 탄압 중지 및 군대철수,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투쟁에 지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국제사회가 연방체제 국가로서 버마/미얀마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버마의 모든 소수민족과 종단들이 깊은 연대와 협력으로 국가를 재건하고, 정신적, 물리적으로 탄압당한 시민들의 아픈 기

역을 공동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3. 우리는 UN과 ICC(국제형사재판소)가 버마/미얀마 군부가 지난 수십 년 간 시민들에게 자행한 잔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버마 군부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국가와 시민의 안보를 위한 새로운 군대로 태어나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버마 군부 및 관련 초국가 기업들 간의 이익 관계를 즉각 차단하고 현 군부 쿠데타 세력의 군사적 장악력을 지탱하는 자금조달 구조를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버마/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미얀마 시민들과의 연대는 곧 이들이 새로운 민주 연방 사회에서 종족과 이념, 종교의 갈등을 넘어 모든 공동체가 조화롭게 삶을 일구어 가는 새로운 국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연대를 촉구한다.

우리는 군부 독재의 잔인한 국가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용기와 인내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는 버마/미얀마 시민들의 자유와 존엄을 향한 투쟁에 동참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버마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11일

Asia and Pacific Alliance of YMCAs /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Japan,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YMCA of Taiwan, Asia Pacific Forum of the North American Church, Center for Minority Issues and Mission (CMIM), Freedom, Dignity and Asia, Friends of Asia, Korea Christian Solidarity for Democracy in Myanmar, 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J),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PROK),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PCT), National YWCA of Korea

정전협정 68년,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2023년까지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남과 북이 그동안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내린 결정이라 의미를 더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대감을 나타내며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촉구했다.

7대 종교·국내 외 4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7일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자” 고 한 목소리를 냈다. 캠페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전협정 체결 68주년과 캠페인 발족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68년 전 오늘 한반도에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지난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다.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각국 정부와 유엔을 움직여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윤은주 집행위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원사업위원장)은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전 세계 서명을 비롯해 각국 정부와 의회,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행

사에서는 각계각층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원영희 공동대표(한국YWCA연합회 회장)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모두의 하나 된 꿈에 실천을 더해줄길 바란다”며 “한반도가 평화의 축이 돼 전 세계 고통 받는 곳곳으로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데, 각계의 서명과 세계인의 지지 선언을 유엔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서명에 8만여 명이 동참했다. 캠페인 측은 “지난 1년간 시민들은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시민들의 움직임에 각국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평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대화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7월 27일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의 발족 때부터 공동대표 단체로 함께한 한국YWCA연합회는 올해 7월 27일 종전협정 68주년이자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1년을 맞아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내외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각 지역 회원YWCA들은 온라인 인증샷을 통해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국제행동에 적극 참여했다. 

정전협정 68년·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1년 기자회견문

68년 전 오늘(7/27), 한반도에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3개월 이내 정치회담을 열어 평화적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한 채 70여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긴 정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민의 열 명 중 한 명이 희생되고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은 한국전쟁이 가져온 피해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춤을 뿐 끝내지 않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의 주민들은 오랜 시간 전쟁의 불안과 군사적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 통해 헤어진 이들을 다시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산가족들은 이제 고향이 되어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지난 70년 동안 겨우 21번의 만남과 7번의 화상 상봉만이 허락되었고, 이마저도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휴전 상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을 부추겨 왔습니다. 인류가 마주한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은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한정된 자원을 민생과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군사 합의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반도를 따뜻하게 감쌌던 평화의 온기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망연자실 다시 전쟁의 불안과 적대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평화를 위해 손을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7대 종교와 국내·국제 350여 개 시민사회 단체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발족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서명을 비롯해 각국 정부와 의회,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모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사회 원로들과 각계 인사들,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정당들이 한반도 평화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배우, 가수, 영화감독, 작가, 방송인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서명과 인증샷으로 참여했습니다. 국제 단체와 해외 동포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거리 서명에 나섰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선언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서명 용지에 적힌 “내가 7살 때 6.25였는데 지금 나는 80세... 아직도 종전이 안되어 슬프다”, “종전이 되어 유럽으로 기차여행을 떠나고 싶다”, “우리의 미래에 전쟁을 남기지 말아주세요”, “단단한 평화를 기반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들은 이 전쟁을 끝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시민들의 움직임에 각국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 노력입니다. 2018년 남·북·미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이라는 상호 위험 감소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었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충돌을 멈출 수 있었으며, 협상의 이정표가 될 합의를 맺었습니다. 남·북·미 모두 어렵게 맺은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북미 간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 속에 답보된 이후, 남북 관계 역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왔습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사실상의 선(先) 비핵화 요구, 민생물품 반출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의 지속, 남한의 기록적인 군비 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관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북한 역시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평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대화와 협력입니다.

**70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한국전쟁에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찍으시다.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전쟁을 끝냅시다.**

2021년 7월 27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인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1922원 릴레이 모금 캠페인

| 대학·청년YWCA

대학·청년YWCA는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인도YWCA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1922원 릴레이 모금 캠페인'과 일반 모금을 함께 진행한다.

릴레이 모금 캠페인은 1922원 모금에 동참한 사람이 다음 순서로 모금할 사람을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되도 있다. 현재까지 총 68명의 회원이 모금에 동참하였다.

대학·청년YWCA는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릴레이 모금 상황을 공유하여 모금을 독려하고 있다. 인도YWCA지원 모금 운동을 통한 모금액은 전액 인도YWCA에 전달될 예정이며, 현재 인도YWCA는 코로나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공간을 운영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8.15 한반도평화 공동기도주일

매년 광복절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과 협의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채택해 왔다. 2021년 평화통일남북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에 제안하였지만 조그련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8.15 직전 주일 예배일은 세계교회협의

회(WCC)가 한반도평화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올해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8.15 한반도평화 공동기도주일' 예배는 한국정교회 조성암 대주교가 '평화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란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올해는 팬데믹 상황으로 8월 1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녹화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다.

| 2021년 평화통일남북공동기도주일 기도문 |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북과 남, 남과 북의 민민이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를 일구어온 터전,
울고 웃던 삶의 모든 기록이 아로새겨진 대지,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더 이상 이 땅 한반도가
전쟁과 폭력의 광풍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땅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 때문입니다.
둘로 나뉜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 년을 허비해왔습니다.

더불어 주님,
북과 남, 남과 북의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소명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념이 달라 그어놓은 물리적 경계가
이 땅을 전쟁과 폭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면에 좁히기 힘든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이들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막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관계는 종식되지 않고,
고스란히 민민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화해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북과 남, 남과 북의 하나 됨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소서.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이념이 그른 경계와 내면의 간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소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진정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북남, 남북통일의 불씨를 살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분단의 철조망이
북과 남,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았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고난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안보의 이름으로 행하는 군사훈령을 멈추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8월 24일 오전 11시, 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탈핵비상선언대회를 개최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며 탈원전정책을 비난하고 지우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핵발전이 위험하지 않을 뿐더러 후쿠시마 사고에서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는 망언을 일삼는가 하면 실현가능성도 없고 탄소중립에 전혀 기여 할 수 없는 SMR과 핵융합발전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핵비상선언대회 기자회견은 지역과 당사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전했는데 창조 보전연대 양기석 신부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양기석 신부는 성장과 이익이 아닌 생명과 미래를 위해 탈핵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와 핵산업계의 각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원전 확산을 주장하는 정치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정치적 진보를 거부하는 낡은 정치라고 지적했다. 종교환경회의 이미에 대표는 탈핵은 생명존중의 세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월성핵발전소이주대책위 황분희 대표는 지진 위험지역인 경주에 월성원전, 중저준위 핵폐기장에 더해 최근 감포핵실험장까지 들어선 경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핵 위험에 둘러싸인 경주 시민들은 언제 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김용국 대외협력실장

은 한빛핵발전소가 격납용기 공극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에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상기후 상황에서 중대 사고 위험이 가중되는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조천호 운영위원은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핵 발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향한 착취라고 지적했다. 기후문제는 과잉의 문제로 전력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는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것이 확인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서는 핵 발전을 늘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는 위험을 핵발전이라는 위험으로 바뀌어서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핵발전은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위험한 정의롭지 못한 발전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 437개 단체와 578인의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더욱 위험해진 핵 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치권이 실질적인 탈핵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오늘 비상선언대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발언자 중심으로 최소한의 현장 참여와 200여 명의 온라인 접속으로 이루어졌다. 



| 탈핵비상선언문 |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흑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호기와 월성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 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친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진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 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하나,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하나,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하나,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하나,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을 법제화하라!

하나,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2021년 8월 24일

탈핵비상선언 단체 및 개인 일동
전국 437개 단체 및 개인 578인

| YWCA 탈핵비상선언 |

“탈핵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기후위기의 대안은 재생에너지로!”

올해는 후쿠시마 3.11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한 지 4년이 되는 해이다. 핵발전소는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으며 동시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에너지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핵 사고로 인한 피해와 고통의 현상들을 수없이 보고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핵 발전을 기후 위기 대안으로 호도하는 세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핵 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탈핵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권과 핵산업계를 규탄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탈핵 에너지 전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상 선언을 선포한다.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문제는 인류의 이기적 소비 행태, 개발과 성장의 논리로 인한 결과이다. 지난 8월 초 발간된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명백하게 완전히 인간의 영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핵 발전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눈물을 담보로 하는 에너지원이다. 그럼에도 불안하고, 위험성 높은 핵발전소 건설에는 위험 비용이 지속적으로 더해지면서 이전보다 더한 고비용 산업이 되고 있다. 국내의 높은 원전 밀집도와 이상 기후라는 불안정한 환경의 영향 하에서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핵 사고의 완벽한 차단은 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고준위 핵폐기물은 여전히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단 한 번의 핵 사고만으로도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지구는 인간만의 서식지도 아니고 지금 세대만의 소유물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눈앞에 놓인 편익에 따른 착취적인 구조를 단절하고 핵 발전의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선택의 길이다.

최근 핵산업계는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크기가 작아졌다고 건설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큰 원전을 작게 분산한다고 하여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개발과 실현 가능성 및 경제성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기후 위기 대응의 효과 역시 검증된 바 없다.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 원문에는 핵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1.5도 억제 경로 모델로서 적합하지 않는 방식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후 선진국들은 탈핵·재생 에너지 체제로 빠르게 산업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 개발로 기존 에너지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들은 납품 기업들에게 재생 에너지로 만든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후진국 한국이 핵 발전에 계속 집착한다면 국내 산업은 머지않아 장밋빛이 아니라 잿빛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핵 발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산적이고 시민 지배적인 재생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는 탈핵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탈핵은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탈핵은 모두의 살 길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하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정지되었을 뿐이며, 핵 발전 옹호 세력의 반동으로 가짜 뉴스가 범람하였고 이후 탈핵의 길은 시작되지 못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한국YWCA는 52개 회원YWCA와 더불어 탈핵 비상 선언을 선포하며, 모든 생명이 핵 없는 안전한 세상,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핵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에 맞서서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촉구하고 행동할 것이다.

-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 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기후위기를 핵 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치명적 핵 사고, 답 없는 핵폐기물, 핵발전소 폐쇄하라!
-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라!

2021년 8월 23일
(사)한국YWCA연합회

“18개 정부부처 공공 홍보물 모니터링, 성차별 표현 760건 발견”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으로 공공 홍보물 성차별 표현 모니터링 실시

공공 홍보물 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을 위탁받아 18개 정부부처 공공 홍보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본 모니터링 사업은 18개 중앙행정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공 홍보물 관련 규정 개선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감수성 증진 방안 등의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다 더 분명하게는 본 연구는 정부 부처 공공 홍보물에 드러난 성차별적 표현(텍스트, 이미지 포함)을 포착하고 부처별 성차별 표현의 빈도와 유형, 성차별 표현 항목별 빈도와 유형, 각 항목별 사례와 부처별 경향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원활한 모니터링 사업 진행을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 연구진을 구성하였고, 김은경 책임연구원, 남유진 연구원, 강희영 연구보조원, 이은아 연구보조원, 이한빛 간사로 구성된 모니터링 연구진은 4개월간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성차별 표현 실태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18개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공 홍보물에서 760건의 성차별 표현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고, 부처별·사례별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바뀌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바뀌지 않는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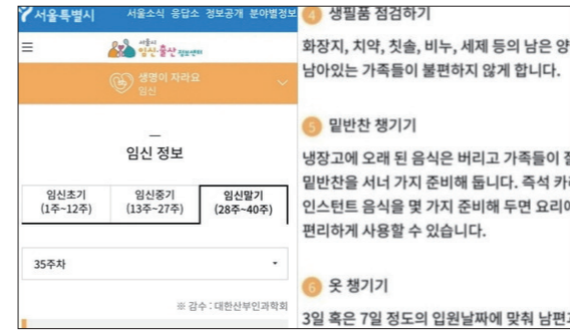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 8

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광역 단위 여성정책연구기관, 국회 내 상설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성평등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실제적인 변화를 도출해내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유리천장 지수에서 OECD 국가 중 9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저항과 백래시(Backlash)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기관이 미온적 대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 관행이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대응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정부 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적인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일상이 되어버린 차별적 상황 앞에 침묵하고 차별적 표현을 반복, 강화,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문제가 되었던 서울시청 홈페이지의 임신정보 사례는 공무원 조직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수준과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고정관념(Gender role stereotype)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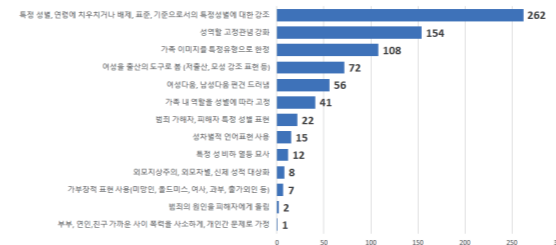
공공 홍보물 모니터링, 이렇게 진행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출처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항목별 성차별 표현 사례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8개 정부 부처의 공식 홈페이지, 필요시 공식 운영 블로그 등으로 확대하여 게시물과 노출 이미지를 대상으로 성차별 표현을 살펴보고 있다. 성차별 표현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11개 항목을 기초로, 연구진이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3개 항목에 따라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성차별 표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국내외 사례를 파악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여성가족부, 서울시, 경기도, 서울YWCA,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실시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흐름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로는 유네스코(UNESCO)의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Framework of indicators to gauge gender sensitivity in media operations and content)', 유엔(UN)의 '모든 성별을 포함하는 언어(Gender-inclusive language)', 유럽의회(EP)의 '젠더 중립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성별 균형적 표현을 위한 묘사 지침(Portrayal Guidelines for Gender Balance Representation)' 등을 살

부처별 성차별 표현 사례 비율



펴보았다. 이를 통해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진입이 결코 한 순간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고정관념과 편견, 전통적인 성역할이 관련 법률의 제·개정, 정책과 제도의 변화, 교육과 학습 등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서 성차별표현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18개 부처별 사례 수, 성차별 표현 항목별 사례 수, 부처별로 드러난 성차별 표현 항목별 사례 수 등의 항목으로 분석하였고, 사례별 분석을 통하여 부처별 성차별 표현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이후에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는 관련 전문가 총 4인이 참석하여 각 부처의 성차별 표현에 대한 의견과 도출된 분석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논의 및 결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정책 제언은 모니터링 연구원 회의에서의 논의되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개선점들을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반복, 강화, 재생산되고 있는 성차별 표현

성차별 표현은 공공 홍보물 이미지 속의 여성과 남성의 성비, 발화나 등장에 대한 비율, 대표적 존재로서의 성별 차이 등과 같은 가시적인 영역과 이미지와 텍스트 표현에 내재된 편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비가시적 영역 등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즉 기준성,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구시대적 관점이 내포된 관습적 표현 등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다만, 정책·행정·법률 용어로서 아직 변화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모니터링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반으로 13개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항목을 도출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 성차별적 귀책 표현, 구시대적 표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8개 정부 부처에서 총 760건의 표현을 발견하였다. 18개 부처의 성차별 표현 사례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총 760건 중 중소벤처기업부 107건(14.1%), 법무부 62건(8.2%), 통일부 56건(7.4%), 국토교통부 53건(7.0%), 보건복지부 52건(6.8%), 환경부 47건(6.2%), 행정안전부 46건(6.1%), 고용노동부 45건(5.9%), 교육부 44건(5.8%), 농림축산식품부 41건(5.4%), 문화체육관광부 38건(5.0%), 외교부 34건(4.5%), 해양수산부 34건(4.5%), 기획재정부 32건(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건(3.3%), 산업통상자원부 24건(3.2%), 국방부 10건(1.3%), 여성가족부 10건(1.3%)을 각각 차지하였다.

가장 많이 발견된 항목은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로 전체 사례 중 34.5%에 해당하는 262건이 확인되었다. 이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항목이 그 뒤를 이었는데, 총 154건으로 20.3%를 차지했다.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사례도 108건(14.2%)으로 세 번째로 많이 발견되었다. 가장 적게 발견된 성차별 표현 항목은 '부부·연인·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한 개인 간 문제로 가정(1건, 0.1%)'


하는 항목과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2건, 0.3%)' 항목으로 나타났다.

지금 필요한 제도적인 변화

한국YWCA연합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국가기관의 홍보물 개선의 필요성을 알고자 하였다. 다만 이 개선이 사후적 조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성차별적이지 않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홍보를 위한 성평등 이미지 제공', '공공홍보 가이드라인 개발과 사전 컨설팅', '성고정관념 없는 공공 소통을 위한 협약', '공공홍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각각 북유럽국가 '이미지뱅크', 경기도 '도정 홍보물 제작 가이드' 및 프랑스 여남평등최고회의(HCE) '성고정관념 없는 공공소통을 위한 10가지 권고사항', 프랑스 여남평등최고회의(HCE) '성차별적 고정관념 없는 정부·공공기관 미디어 홍보 가이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를 바탕으로 하였다.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는 한국YWCA

모니터링 사업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사회에서 즉각적으로 많은 반응을 보였다. 여러 언론사의 기사와 정부 부처의 문의가 있었고, 관련한 교육 문의도 이어졌다.

모니터링은 한국YWCA가 지역에서부터 지속해오던 운동으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성차별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YWCA의 노력이다. 앞으로도 한국YWCA는 모니터링 운동을 통해 정부기관을 점검하고 시민사회 안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주제처럼 사회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여성들이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는 한국YWCA 운동을 앞으로도 기대하기 바란다. 

| 성명서 |

기후위기 대응 포기하고 민주주의 왜곡하는 #탄소중립위원회 규탄한다

8월 5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되었다. 작년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정부 차원의 밑그림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필두로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의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마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압축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시나리오 수립과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깝다.

먼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개의 시나리오 중 2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상으로도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상을 들고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탄소중립위 스스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조직인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시나리오(1안)에 대해 탄소중립위는 석탄발전 조기중단은 '법적 근거와 보상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전 사회적인 구조의 획기적인 전환, '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 마련과 같은 말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에 이르는 이행경로가 없다. 오직 2050년이라는 특정 시점과 현재가 비교될 뿐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지금 당장 줄여나가며 배출제로까지 이르는 중간 지점일 뿐이다. 2050년 탄소중립보다 2050년까지 30년 동안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마법같은 과학기술이 등장해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된대도 2049년까지 지금까지처럼 배출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실패한다. 그래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훨씬 중요하지만 탄소중립위는 일언반구도 없다.

왜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등장하는가. 기후위기의 원인을 화석연료라는 에너지원과 시민들의 무분별한 소비문화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해법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거나 핵발전을 유지하고 '무탄소신전원'을 도입하겠다는 게 된다.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감축은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니다. 거대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소 기술', '차세대 바이오 연료'와 같은 미래 기술이 개발되어야만 하고 화석연료가 내뿜는 탄소는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기술'을 개발해 해결하겠다고 한다. 위험하고 현실성 없는 '미래 기술'이 '혁신성 원칙' 아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 '책임성 원칙'을 내세우며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시민들의 행동양식 변화를 요구한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오로지 '이윤추적을 위한 '성장'만을 추구해온 기업과 자본 그리고 정부에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했다.

이렇게 황당하고 무책임한 시나리오를 한 달간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게 '탄소중립시민회의'의 역할이다. 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연령, 성별을 비례할당해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위원 500명의 온라인 토론과 설문은 시나리오에 대한 '여론조사'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포기한 시나리오들이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이다. 이는 '시민참여'가 아니라 '시민동원'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엔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황당하고 무책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시민참여'와 '의견수렴'이 기획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기후위기의 책임이 정부와 자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착수하려 했다면, 탄소중립위원회도 탄소중립시민회의도 이렇게 구성되었을 리 없다. 산업계는 변화의 대상일 뿐이며, 변화의 주체는 기후위기 시대를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 시민들이다.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검토될 가치조차 없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상향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고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

2021년 8월 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월례아침기도회



7월 월례기도회가 7월 1일(목) 오전 8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연합회 실행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월례기도회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11-12절의 말씀으로 원영희 회장을 비롯하여 정유진, 정혜원, 한미미, 함희경 실행위원들의 간증을 나눴다. 또한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맞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한국YWCA가 되도록 기도하며 마무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p.5)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출범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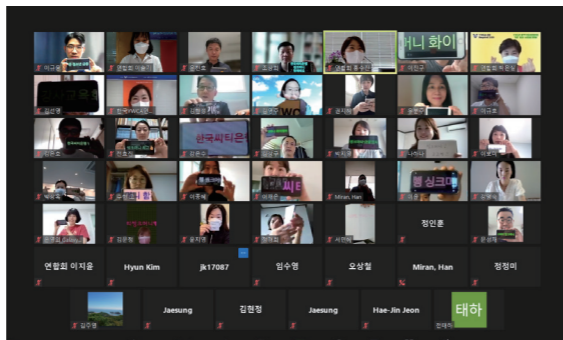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출범식이 7월 8일(목) 온라인(ZOOM)으로 열렸다. 전국 51개 회원YWCA 대표단과 연합회 실행위원, 임원단, 실무자, 후원회 이사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다미 한국YWCA 100주년준비단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출범식이 시작됐다. 김숙희-원영희-서다미 100주년준비단 공동위원장의 비전과 바람을 담은 인사말 영상이 소개되고, 100주년 준비단(고문단, 자문단, 준비위원회) 구성과 기념사업 계획이 소개됐다. 이어 2022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YWCA 김선옥 회장과 서울YWCA 이유럽 회장이 축하 인사말을 전했고, 참가자들이 함께 목적문을 제창하고 'Y, W, C, A, Go, 100'이 적힌 종이를 들고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쳐 한국YWCA 100주년의 시작을 알렸다.(자세한 내용은 p.6)

(사)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온라인) 개최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출범식에 이어 7월 8일(목)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사)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온라인)에서는 150여 명의 총회원들이 참여하여 100년을 맞는 전국단위 NGO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결단했다. 김성이 경상권협의회 대표(진주YWCA 회장)의 개회 기도로 시작된 이번 총회에서는 경주YWCA 탈회의 건, 한국YWCA연합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의 건, (사)한국YWCA연합회 정관개정 건을 협의하고 의결하였고, 기타로 법인 승인 기준 완화 제안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온라인총회로 진행됨에 따라 표결은 전자 투표로 진행하였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한국YWCA가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회원 YWCA의 재구조화에 이어 연합회의 구조개편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연합회는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구조개편과 정관 변경의 경과 조치에 따라 2022년 총회부터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실행하게 된다.

2021 씨티강사교육



2021 YWCA-Citi 씨티강사교육이 7월 7일(수) 씨티임직원 총 44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교육은 YWCA의 금융경제교육과 의미, 씨티임직원의 씽크머니 특강 실제 사례 공유, 청소년과 사회적경제, 금융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이해,

씽크머니 펍핀 프로그램 워크숍 등 씽크머니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씨티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았으며, 씨티강사교육이 청소년 금융경제교육의 이해와 씽크머니 교육 현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다.

YWCA 성평등 월간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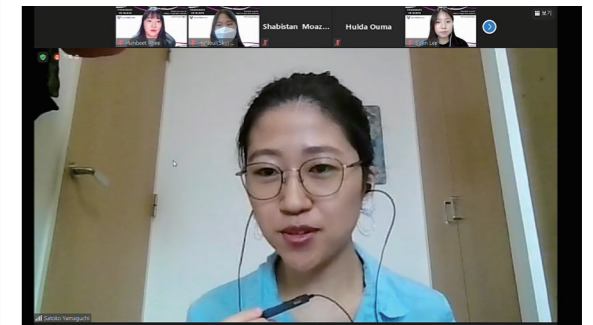
2021년 5월부터 연합회 및 회원YWCA의 이사, 실무활동가를 대상으로 성평등 월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성평등 월간 토론회는 여러 성평등 이슈를 학습하고 한국YWCA 대선 의제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5월에는 'Covid-19와 여성 이슈를 주제로 제6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가자들이 세계 여성 이슈를 공유하였으며, 6월에는 '기후위기와 젠더'를 주제로 윤경호 이사(여성환경연대)가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7월에는 '젠더와 대선 정책의제'를 주제로 보다 더 심도 있는 대선 의제 토론이 진행되었다.(자세한 내용은 p.18)

한국YWCA 성평등 대선정책TF위원회



2021년 7월부터 성평등 대선 정책 준비가 시작되었다. 연합회 성평등운동팀에서는 한국YWCA의 전문적인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하여 여성 대표성, 경제, 범죄, 교육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성평등 대선정책TF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현재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의제 발굴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목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후 '한국YWCA 2020-2021 성평등운동 목표'와 '2021년 YWCA 성평등 월간 토론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책 의제를 구성하고, 회원YWCA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대선 정책 의제를 구성할 예정이다.

UN WOMEN YAA(Youth Activism Accelerator) 프로그램



2021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UN Women 아시아-퍼시픽 사무소 주최로 '온라인 청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국YWCA에서는 전국 대학·청년Y 활동가 2명(서다미, 김현진), 지역 대학·청년Y 활동가 2명(김시원, 최형원), 지역 청년 실무활동가 2명(이수아, 윤승희), 연합회 청년 실무활동가 3명(이수진, 이한빛, 홍하늘) 총 9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generation equality(세대 평등)를 주제로 청년운동/청년리더십/청년페미니스트운동 등 다양한 관점과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한국YWCA에서는 '한국의 젠더폭력과 한국YWCA의 여성운동'을 주제로 짧은 발제를 진행했다.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참여

한반도평화체제 협력을 논의하는 제7회 한-미교회협의회(NCCK-NCCCUSA Consultation)가 6월 25일(금) 오전9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내자'라는 주제 하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국그리스도교회협의회, 캐나다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개혁신교회연맹의 대표 60여 명이 참석하여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위한 공동행동을 협의하였다. 선언문을 통해 한미 교회 공동 캠페인단 구성,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캠페인, 청년 평화 공동연수, 민간평화



외교 활동, 2022년 노근리 치유와 화해 예배 등을 결의하였다.

기후위기 대응 없는 제2의 녹색성장법 반대 기자회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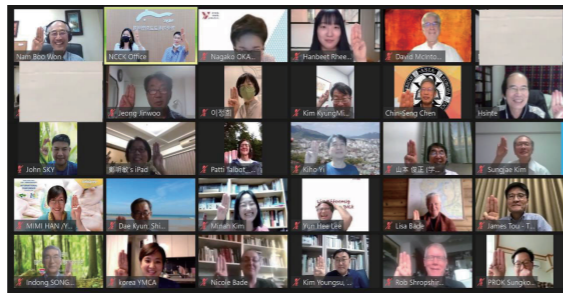
한국YWCA가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은 6월 28일(월) 오전9시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후 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 반대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는 일정을 앞두고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논의를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의 제대로 반영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21 YWCA 탈핵기후행동학교 3차

7월 1일(목) 오후2시 연합회에서 18개 회원YWCA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21 탈핵기후행동학교 3차를 개최하였다. 지역 에너지 전환과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하여 신근정(로컬에너지리퍼 대표, 분회 탈핵기후생명운동TF 전문위원)님의 강의와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자 지역에서 전개해나갈 탈핵기후생명운동의 구체적 활동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였다. 추후 대선 의제 활동 및 공동캠페인 등을 통해 YWCA 탈핵기후행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버마-미얀마 플랫폼 발족식



(사)한국YWCA연합회는 7월 12일(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바라는 국내외 에큐메니칼 단체들과 함께 '버마-미얀마 플랫폼(Burma/Myanmar Platform)'을 발족하였다. 한국YWCA연합회를 포함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일본교회협의회, 대만장로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북미 아시아 태평양 포럼, 연합교회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코로나19 관련 인도주의적 지원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 및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 평화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p.27)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연명



연합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위한 연명을 7월 한 달간 진행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성매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예방 지원시설이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전국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시설 103개, 전국 시민사회단체 234개, 사회복지 시설 및 기타 47개, 개인 971명이 연명에 참여하였다. 8월 18일 열린 국회긴급토론회에서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p.21)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 1인 시위



한국YWCA는 7월 19일(월) 낮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일본 도쿄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방사성 오염수 방류의 절차를 인정하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 공동행동'의 단체들과 더불어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남북북미대화이행,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한국YWCA가 함께 하고 있는 '망북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7월 26일(월) 오후2시 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본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각계 발언 순서를 통해, 한미 간의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전향적 동맹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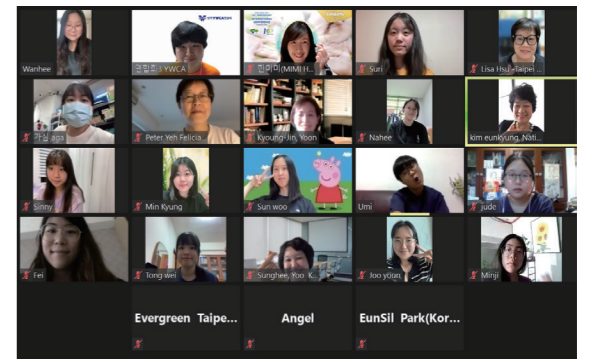
7.27 한반도중전평화캠페인 1주년 국제행동: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한반도중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은 올해 7월 27



일 중전협정 68주년이자 한반도중전평화캠페인 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내외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각 지역 회원YWCA들은 온라인 인증샷을 통해 한반도 중전과 평화를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국제행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7월 27일(화) 오전 11시 1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본 캠페인의 공동대표로서 한반도중전평화캠페인의 성과와 의미를 다지고 한반도를 넘어 평화의 물결을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p.28)

2021 Y-틴 드림십 프로그램



2021 Y-틴 드림십 프로그램이 7월 31일(토) 온라인(ZOOM)에서 진행되었다. 한국과 대만 양국 청소년 참가자 10명과 타이페이YWCA 회장, 실무활동가,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영사)과 김은경 위원장, 김영자, 윤경진, 한미미 위원이 참석했다. 양국 참가자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2월부터 온라인 미팅을 통해 조별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과 결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YWCA와 대만YWCA는 향후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청소년 이슈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8.15 한반도평화 공동기도주일



광복절인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다. 매년 광복절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과 협의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채택해 왔다. 2021년 평화통일남북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에 제안하였지만 조그련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8.15 직전 주일 예배일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한반도 평화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올해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8.15 한반도평화 공동기도주일' 예배는 한국성교회 조성암 대주교가 '평화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란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올해는 팬데믹 상황으로 8월 15일 주일 오후 2시 녹화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다.(자세한 내용은 p.31)

탈핵비상선언대회, 탈핵시국선언 발표

8월 24일 오전 11시, 한국YWCA연합회 회관에서 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기후위기비상행동으로 '탈핵비상선언대회'를 개최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며 탈원전정책을 비난하고 지우려



는 시도에 대응하여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 437개 단체와 578인의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더욱 위험해진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치권이 실질적인 탈핵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이날 비상선언대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발언자 중심으로 최소한의 현장 참여와 200여 명의 온라인 접속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p.32)

YWCA 가치를 전하는 금융·경제 교육 연구단 양성



YWCA 가치를 전하는 금융·경제 교육 연구단 양성 프로그램이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단 양성 프로그램은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육 씽크머니 프로그램 소속 강사들의 강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참가자 8명과 참가자에게 멘토링을 제공한 전문가 7명, 총 15명이 함께하였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필요한 기술 및 기법, 학습지도안 설계 방법, 학습지도안 작성 실습과 수업 시연 등 현장 강의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은 연구단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씽크머니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금융교육을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모금

(2021.06.01. ~ 2021. 08.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안정희, 조봉자	473,389
회원YWCA	*여수YWCA, 진해YWCA	
합계		769,150
누계		44,820,604

*여수Y 모금액(2,127,500원)은 4월 모금액에 합산됨.

코로나극복을 위한 인도YWCA지원 모금 현황

(2021. 6. 1 ~ 2021. 8.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계광숙, 광동화, 광주리, 광지영, 구분화, 김경태, 김광식, 김명재, 김미애, 김민주, 김상호, 김성이, 김수진, 김영진, 김윤지, 김은지, 김정현, 김종원, 김하영, 김현진, 김호섭, 박민지, 박보람, 박성연, 박윤애, 배영광, 배유미, 서다미, 서형원, 송소연, 양유정, 엄주연, 오대근, 오영숙, 유성희, 윤승희, 이기연, 이상령, 이수진, 이예린, 이예림, 이은화, 이은희, 이민규, 이정우, 이주안, 이지영, 이지윤, 이지현, 이한빛, 이현재, 전세현, 전창하, 전호진, 정다빈, 정서연, 정진아, 주윤진, 차민규, 천유란, 최선화, 하지민, 함희경, 홍수진, 홍진영, 홍하늘, 황채영, Fujishiro Sachiko(일본Y)	1,279,936
21개 회원YWCA	전주YWCA	
누계		1,279,936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1. 6. 1 ~ 2021. 7.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구영선, 김가영, 김다영, 김병찬, 김상미, 김지영, 김태연, 박규덕, 박진아, 최서아, 최서윤, 최서진, 최지아, 최지안, 안서진, 엄희성, 오현자, 유종현, 윤봉이, 윤수정, 이강숙, 이예림, 이주영, 이정근, 이형순, 이홍자, 이희정, 정세영, 정현희, 조윤나, 천유란, 최규라, 신정원, 홍현정	473,389
21개 회원YWCA	강릉YWCA, 거제YWCA, 광주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전YWCA, 목포YWCA, 사천YWCA, 서울YWCA, 수원YWCA, 순천YWCA, 수원YWCA, 순천YWCA, 양산YWCA, 익산YWCA, 제천YWCA, 창원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포항YWCA	7,300,000
누계		910,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1. 6.1~ 2021. 8.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광지영, 구정혜, 국은택, 권경미, 김기현,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차더르즈 돌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상순, 문윤희,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지영,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창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찬형, 이천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천유란, 최수산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4,635,000
회원YWCA	양산YWCA, 창원YWCA	55,000
교회	약전평강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한양대여성교회	370,000
개인	김대식, 조승원, 조승환	70,000
합계		5,130,000
누계		14,942,030

*CMS는 6월, 7월분임

경인·강원권역

강릉YWCA

이수아 간사

제로웨이스트샵 오픈 기념식



강릉YWCA에서 6월 29일(화) 오후 2시 '당신의 용기를 환영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민들레뜨라이 제로웨이스트 샵으로 새 출발을 알리며 오픈 감사예배와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강릉YWCA는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책임 있는 소비, 재사용 및 재활용으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강릉YWCA의 제로웨이스트 샵에는 플라스틱 용품이 아닌,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 소재의 제품들로 대나무 칫솔, 소프넷, 면 생리대, 실리콘 지퍼백 등과 핸드메이드로 만든 소창 주머니, 면보, 다시팩, 삼베 수세미 등의 친환경 제품 및 EM(유용한 미생물)제품과 용기를 가지고 오면 원하는 만큼의 세제와 곡물을 소분해 사갈 수 있는 경제적인 리필코너도 마련하였다.

동해YWCA

정미숙 팀장

묵호역 주변 업소 계도 및 홍보캠페인



동해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7월 9일(금) 오후 7시 묵호역 주변의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금지 스티커를 나눠주고 부착하였다. 동해YWCA는 업소의 자발적 참

여를 이끌어내어 동해시의 구석진 곳까지 살피어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도 활동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사)서울YWCA

성지희 팀장

오디오 성경 제작



서울Y는 창립 100년을 준비하며 영성 회복을 위해 '회원과 함께하는 오디오 성경 - 잠언'을 제작했다. 선착순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남녀노소 100명의 회원이 참여해 저마다의 목소리로 잠언을 기록했다. 완성된 오디오 성경은 Y, W, C, A 총 4편에 걸쳐 서울Y 유튜브와 오디오 클럽 채널을 통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원주YWCA

김은섭 사무총장

탄소제로교육



원주YWCA는 7월 15일부터 16일 이틀 동안 환경교육프로그램(탄소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원주YWCA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 행동으로 화분 만들기, 이엽발효액 만들기, 모기 퇴치제 만들기 및 이엽흡공 던지기 체험을 하였다.

인천YWCA

서순아 팀장

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식



인천YWCA는 6월 12일(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를 발굴·육성하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인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의 개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BACK TO THE 7080'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공연과 퀴즈프로그램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개막식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전통과 건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도 제공할 수 있었다. 8월 7일(토)에는 'BACK TO THE 1990'이라는 테마의 두 번째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온라인(유튜브라이브)로 진행되었다.

춘천YWCA

송영주 간사

커피바리스타 자격증반 개강



춘천YWCA는 6월 21일(월)부터 국내 최초 WSBC 2년 연속 바리스타 챔피언 강사님과 함께 하는 커피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지역 내 '원즈 바리스타 학원'에서 개강하였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인원 제한과 방역 수칙 등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총 9명이 커피와 관련된 창업, 취업, 취미, 자격증 취득을 위해 커피학이론, 에스프레소, 로스팅&블렌딩, 모카포트 등의 교육을 받았다. 춘천YWCA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역량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경기권역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에코Y-데이 장터



고양YWCA는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6월 4일(금) 일산서구 강선공원에서 '에코Y-데이장터'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분리배출방법 OX퀴즈,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방법 소개, 플라스틱사용을 줄이는 나만의 외출가방전시, 플라스틱 없는 대안생활용품 등의 전시를 통해 플라스틱 프리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아나바다물품을 모아 판매하고, 각 가정에서 잡고 있는 텀블러를 기증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대다수 시민들은 OX퀴즈를 통해 분리배출방법을 알아보고,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 시민들은 고양YWCA와 함께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YWCA

박문경 총장

시민공론장 :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Show me the 공익'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 광명YWCA는 7월 6일(화) 계도 마련과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공론화를 준비하여,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

주는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시민공론장I을 광명시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은 지역 공익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진행이다. 박문경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었고, 주제 발제는 군포시공익촉진위원회 김현위원장, 지정토론자로는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학박사, 광명시민관협치조정관, 광명시민단체 활동가가 토론을 하고 청중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생활에서 실천하는 지구 살리기 캠페인



남양주YWCA는 6월 5일(토)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남양주비상행동에서 함께 활동하는 남양주시 시민단체들과 함께 마석역 일대에서 쓰레기를 주웠다. 남양주YWCA는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의 재난과 생태계 파괴 등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구 살리기 캠페인에 참가했다. 남양주YWCA는 캠페인을 통해 남양주 시민들 모두가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천YWCA 유예은 간사

찍으면 보인다 QR스티커 제작 및 배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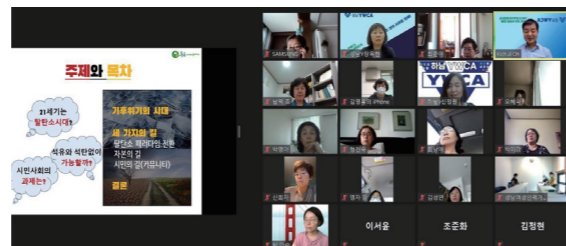


부천YWCA는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찍으면 보인다 QR스티커 제작 및 배포사업'

을 진행한다. '찍으면 보인다'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진로, 성, 가출, 안심살바 등에 대한 고민을 받고, 부천YWCA, 해봄부천시성문화센터, 청개구리심야식당,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을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이버 또래 상담가들이 함께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다.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어 접근이 용이하며, 익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을 꺼려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없다. 현재 이 사업은 연계된 단체들과 함께 거리홍보와 SNS 등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천시 중,고등학교와 도서관 등에도 배포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성남YWCA 김지혜 주임

기후정의 아카데미 기후위기 대응 시민활동가 양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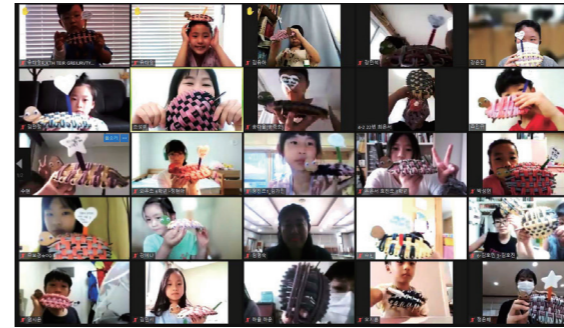


성남YWCA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으로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시민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시대에 성남YWCA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기후위기 현황을 알고,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 채식 등을 통한 탄소중립의 실천 그리고 기후위기와 탈핵을 명확히 알고자 한다. 또한 교육 이후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며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사)수원YWCA 강은진 간사

2021 내가GREEN지구 - 환경과 인간의 공존방법 찾기

수원YWCA는 수원시, 화성시 등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 2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2021 경기품의학교 사업 '내가GREEN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GREEN지구'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지구적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상생활 속 실천방법을 찾아보는 학교이다. 수원YWCA는 지난 7월 12일(토)



ZOOM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버려지는 것들을 재사용하는 방법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무엇으로 만들어야 더 나은 방법이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말목을 활용하여 바구니와 거북이 장식품을 만들었다. 양말목은 양말공장에서 새 양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남은 자투리 천으로, 하루에도 몇십kg의 양말목이 버려지고 있고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처분되는 실정이라, 이런 양말목으로 또한 쉽게 버려지는 자원을 재사용하는 '업사이클링'활동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이 쉽게 버려지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가GREEN지구'활동은 12월까지 지속되며,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기후위기와 젠더'



안산YWCA에서는 7월 6일(화) 오후3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강당에서 '기후위기와 젠더'를 주제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윤숙 연구원(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의 강의로 '기후위기와 젠더'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확장하고, 그린뉴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젠더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사)안양YWCA 신재화 간사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6주년



지난 7월 27일(화), 안양YWCA 부속시설인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가 26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1995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처음 개관한 센터는 2001년에 노동부 직업교육훈련 기관 승인을 받으며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안양지역의 여성 취업교육과 알선 등에 힘써왔다. 그리고 2021년 현재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민간위탁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경기도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사업,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안양지역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기량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혐오와 차별없는 미디어세상을 만드는 젠더·리터러시 강사양성교육



의정부YWCA는 최근 가속화되어가는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쓰고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할 젠더 리터러시강사 과정을 진행하였다.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 동안 이어진 미디어와 젠더의 이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차별,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한 교

육과정을 통해 총 15명 중 13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양성된 강사들은 9월부터 학교 등지에 파견되어 청소년들이 젠더 관점으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남YWCA 강승민 간사
성평등 위원회 발대식



하남YWCA에서는 7월 7일(수) 함께하는 성평등 교육 8회기 후 하남YWCA 회관 앞에서 성평등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발대식 후에는 지역 상가 곳곳을 찾아가 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성평등 위원회 발대식에서는 위원 모두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인 실천활동으로 성평등한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남YWCA 성평등 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성평등 전문교육을 통한 여성주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며 성별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충청권역

논산YWCA 조은숙 주임
청소년 탐탐(탐하고 탐구하다) 인권 리더십 캠프

논산YWCA는 논성중학교 전 교생을 대상으로 '탐탐 청소년 인권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였다. 이날 참여한 77명의 학생들은 인권 골든벨과 팀 빌딩 활동을 통해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해 배우며, 나를 생각하는 것만이 학생 인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인권임을 학습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하였다. 또한 '탐탐(탐구하고 탐하다) 인권 리더십 캠프'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상호 존중하며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길 것이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과대포장 시민의식조사 및 플라스틱 줄이기 환경활동 진행



대전YWCA는 6월 24일(목) 10시 대전YWCA 유성 Y카페에서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줄이기 샴푸바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코로나이후 일회용품, 플라스틱,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전시민들에게 환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6월 14일에서 25일까지 과대포장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재포장 금지법 등을 널리 알리며, 완구 소형전자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에 시정요청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의 각 5개의 구에 2곳씩 총 10곳에 자원순환함을 설치하여, 아이스팩3개, 종이쇼퍼백 3개를 가지고 오면 대나무칫솔로 바꿔주는 자원순환 캠페인도 함께 진행 중으로 자원순환을 위한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대전YWCA는 플라스틱줄이기, 생활쓰레기 제로프로젝트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에 힘쓰고 있다.

세종YWCA 양유정 간사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 소비역량강화 교육



세종YWCA는 6월22일(화) 취약계층(노인)을 위한 디지털 금융 소비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6명이 참석하였으며, 소비피해예방, 통신서비스 등 소비역량강화 교육과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촉진을 위한 녹색소비교육을 전달하였다. 소비자교육은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8회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고령소비피해예방 홍보와 지속가능한 녹색소비생활을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여름방학 문화교실



제천YWCA 지구별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4회에 걸쳐 '레고를 활용한 이야기 꾸밈터' 교실을 운영했다.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로 친구와 단절되고 스마트폰과 게임에 노출된 아이들의 여가 시간에 레고를 이용해 창의적 생각과 아이디어를 토대 친구들과 함께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롭고 지친 일상에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천안YWCA 곽효정 팀장
[참여약속서]와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이 살기) 운동 실시



천안YWCA는 7월 26일(화)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이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이 살기)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 내 소상공인과 함께 하고자 신부동 먹자골목 일대를 순회하며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약속서'를 통해 협력한 사업장은 달리는 커피 외 13곳으로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이 살기) 실천에 참여하기로 약속하고 천안YWCA는 해당 사업장을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천안YWCA 청년희망세상(다목적카페)에서는 일회용품(컵, 빨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고 소독한 '텀블러 대어운동'으로 쓰레기 없이 살기를 실천 중이다.

(사)청주YWCA 한기연 간사
마을리빙랩 발대식



(사)청주YWCA는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재생에너지 지역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에

공모해 선정되었다. 청주YWCA는 사업의 일환으로 7월 24일(토) 온라인으로 에너지전환을 꿈꾸는 마을리빙랩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문의면, 오창읍, 분평동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6개의 동아리가 발대식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기반 삼아 탄소중립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각자가 마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에너지 시민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권역

거제YWCA

박숙혜 간사

그림책 양성평등 교육 활동가 수료식



거제YWCA는 7월15일과 16일, 경상남도양성평등기금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그림책 양성평등 교육 활동가' 참여자들과 강의 시연 및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교육은 5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6차에 걸쳐 온라인 영상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7명 모두 수료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양성평등 그림책 제작 및 교육전문기관인 '딱따구리'(대표 유지은)와 함께 '당신의 책장은 평등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영유아 성인지 감수성 교육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그림책을 통해 영유아와 함께 성차별 요소 및 성 고정관념을 찾아내 놀이와 게임 등의 방법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향후 수료생들은 관내 영유아 교육시설과 연계해 그림책 양성평등 모니터링과 성인지 교육활동가로 활동하게 되며, 지역아동들이 올바른 성평등 의식 고취로 성별에 따라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잠재의식을 발현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도록 도울 것이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김해YWCA 제로웨이스트 상점 개점



김해YWCA에서는 7월 19일(월) 오후 1시30분 김해YWCA [제로웨이스트 상점] 오픈식을 진행하였다. 행복한 교회 황봉화 담임목사의 '무엇을 담을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1부 기념 예배를 진행,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참여자들이 스카프를 연결하여 직접 풀어 <제로웨이스트 상점> 오픈의 의미를 더하였으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1년 김해시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의 일환인 <제로웨이스트 상점>은 5월부터 6월까지 준비 기간을 가지고 김해YWCA 지하공간에 리모델링과 친환경 물품을 준비하여 삼계 북부 지역의 환경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개점하였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의 일환인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통해 지역의 자원순환을 이끌어내고 이와 연계하여 지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환경 운동을 연계할 것이다.

(사)대구YWCA

김혜원 차장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 '신도불이교육 및 현장체험'



(사)대구YWCA는 지난 6월 12일(토) 10시부터 3시간 동안 베리토리농장에서 대구Y 회원들과 함께 블루베리 수확 체험활동을 가졌다. 체험활동은 덥지 않은 선선한 날씨 오전 시간으

로 야외 활동에 적합한 환경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준수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회원들 모두 서로 간의 소통과 블루베리 수확 체험에 만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대면 진행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목마르던 차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에게 오랜만에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전해드릴 수 있어 어느 때보다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마산YWCA

김민지 간사

마산YWCA 창립 55주년



마산YWCA는 7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마산YWCA 강당에서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예배를 진행하였다. 김명자 회장의 인도와 마산 열림교회의 박규원 담임목사의 "왜 의심하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시작으로 장은경 이사의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의 바이올린 특별 연주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직원들이 준비한 "마산아지매 축하" 축하공연 등 다채롭게 창립 55주년 감사예배가 진행되었다. 김명자 마산YWCA 회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 구성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마산YWCA의 창립 55주년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창립 55주년 감사예배를 마쳤다.

부산YWCA

최수정 간사

부산YWCA 창립75주년 감사예배

부산YWCA는 창립75주년을 맞이하여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회원이 모여 온/오프라인으로 감사예배 및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김기석 목사(서울청파교회 담임)의 설교와 부산YWCA



교역자자문위원회의 특송으로 감사예배가 드려졌으며 기념식에서는 축하공연 및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동부지역회원의 축하영상과 함께 탈핵기후생명 사회를 향하여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YWCA는 지나온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100년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갈 것이다.

양산YWCA

김유경 간사

"시니어 놀이는 시니어가 만들어요!"



양산YWCA는 6월 10일(목) 양산 리빙랩 프로젝트 시즌2를 오픈했다. "더 알로(아래로)~ 쪽쪽~ 올로(위로)~" 어르신들과 함께하니 이렇게 잊혀져 가는 정감 있는 말도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 실험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양산YWCA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과 함께 리빙랩을 할 수 있을까?"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생활연구단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좁히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달려가 어르신들께 리빙랩을 소개했다. 양산YWCA는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어르신 토론문화 정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양산YWCA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시민 사회를 꿈꾼다.

울산YWCA

권한별 간사

울산YWCA 39회 창립기념식



울산YWCA의 39번째 창립기념식이 6월 8일(월) 2층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조명화 부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창립기념예배는 울산YWCA여성합창단의 '축복하노라' 공연과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긴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울산YWCA의 활동가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간이었다. 2부 기념식은 생명 운동에 기반한 친환경, 여성, 청년리더십, 공동체 활동이 담긴 39년의 울산Y의 기록과 부속시설 활동영상,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울산Y와 함께 동행해준 자원활동가들의 축하 영상이 상영되었다. 울산Y는 앞으로 '회원'과 함께 도약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



진주YWCA는 7월 9일(금) 아름다운가게 진주시청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진행하였다. 진주YWCA의 이사, 실무자, 회원들이 모아주신 다양한 물품들(500여 점)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고, 아름다운가게에서는 기증받은 물품을 상품화 및 가격을 책정하여 하루 동안 판매하였다. '아름

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진주YWCA의 이름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후원될 예정이다. '아름다운 하루'는 아나바다 실천을 통하여 환경을 살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수익금을 다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자원의 나눔과 순환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1일 바자회이다.

진해YWCA

권영주 간사

찬양 부르기로 이기는 코로나19



진해YWCA는 2021년 하반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원회 주관, 찬양 부르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을 잠정 중단하였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찬송가 1장부터 부르기 교실을 시작하였다. 매일 아침 전직원이 자율적으로 QT in으로 경건 시간을 가진 후 업무를 시작하고, 매달 첫 주 월요일은 임원회 주관 특별기도회를 하고 있다.

창원YWCA

김하영 간사

창원시 정책 모니터링



창원YWCA는 2021년 6월부터 일자리와 돌봄 분야 중심으로 창원시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평등 기금으로 시

민 모니터링단을 양성하였고, 여성단체 활동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젠더관점으로 정책을 분석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창원시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원YWCA가 관심을 갖고자 한다. 9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는 시민원탁토론회를 통해 창원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통영YWCA

변은실 팀장

아이스팩 리사이클 캠페인



통영YWCA는 자원순환실천운동으로 "아이스팩 리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통영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스팩을 기부 받아 전통시장과 가게에서 재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아이스팩을 활용한 디퓨저 만들기, 공기정화식물 심기 체험활동으로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 운동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환경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포항시민행동 출범'



포항YWCA는 7월 21일(수) 포항시청 광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반대 포항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포항YWCA의 5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포항 시민행동을 출범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에 분개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번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포항시 내 일원에서 릴레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라-제주권역

광주YWCA

서정현 부장

두레산악회 with 지구를 살리는 '줍쓰줍킹' 캠페인 실시



광주YWCA 두레산악회(총대장·방정원)는 지난 6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 모여 두레산악회 대원 20여명과 함께 광주YWCA 탈핵기후생명운동 기후정의 사회를 위해 무등산 등반 '줍쓰줍킹'(줍다+쓰레기, 줍다+위킹)의 줄임말, 워킹하면서 지구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지구 살리기 캠페인)을 실천하였다. 이날 광주YWCA는 탄소 중립을 위한 숲의 중요성을 알리며, 일본 정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캠페인을 함께 전개했다. 이날 참석한 두레산악회 대원들은 인증샷을 광주YWCA 카카오톡 채널 등 SNS에 공유하며 앞으로 꾸준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YWCA

황수미 간사

군산YWCA 재구조화 지원교육

군산YWCA는 6월 8일(목) 오후 1시 30분에서 4시30분까지 군



신Y 회관에서 한국YWCA연합회지원으로 군산Y 비법인사단 재구조화 지원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군산Y 이사회와 본부 실무자 총 13명이 참여하였으며,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의 박동순 국장, 송록희 부장, 이해련 부장의 교육 지원으로 회원Y 재구조화 필요성 및 방향, 비법인사단 이해와 이사의 책무, 회원Y 비법인사단 세무 전환 절차,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재구조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재구조화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남원YWCA 박희정 간사

30주년을 맞이하는 남원YWCA 기도회



남원YWCA는 6월 16일(수) 오후 2시 회관 건물 4층에서, 남원YWCA 30주년(다가오는 12월 19일)을 맞이하는 기도회를 하였다.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유정이 회장 외 이사, 직원, 회원들이 모여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1부는 기념 예배, 2부는 남원YWCA를 위해 헌신하신 전 회장님들의 격려사를 통해 과거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남원YWCA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 남원YWCA가 하나님의 기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다. 남원YWCA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을 통해, 60년, 90년, 100년을 향한 하나님의 역

사 속에 꿈과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을 품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찾아가는 진로 페스티벌 “You야호~!” 개최



신안진로체험지원센터(사)목포YWCA)는 7월 14일(목), 자은중학교 자은관에서 신안군 자은, 안좌, 암태중학교 학생, 교사, 강사 등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진로 페스티벌 “You야호~!”(1차)」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로 진행한 「찾아가는 진로 페스티벌 “You야호~!”(1차)」는 학생들이 원하는 범무직 분야 및 5개 분야 10개의 실내직업체험, 찾아가는 로파크 수사체험버스 실외직업체험-부스운영과 자신의 진로적성 찾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야호 피켓’ 인증샷과 선물을 증정해주는 “You야호” 이벤트를 진행하여,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는 전문직업인으로부터 듣는 직업이야기와 비전제시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 “야호~!”를 외칠 수 있도록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2021 온&오프라인 서귀포여성취업박람회 운영



서귀포YWCA(회장 고맹수)는 서귀포시와 함께 ‘2021 온&오프라인 서귀포여성취업박람회’를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서귀포YWCA 회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여성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연계, 현장면접, 이력서컨설팅, 화상면접지원, 체험프로그램, 현직자 멘토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간대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였다. 취업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위해 서귀포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새일여성인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라인 서귀포여성취업박람회’를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서귀포YWCA 회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여성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연계, 현장면접, 이력서컨설팅, 화상면접지원, 체험프로그램, 현직자 멘토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간대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였다. 취업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위해 서귀포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새일여성인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순천YWCA 신정옥 간사

2021년 사단법인 순천YWCA 플로깅 캠페인



(사)순천YWCA는 7월 19일(월) 장세순회장의 이사, 직원들이 모여 순천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조례호수공원에서 플로깅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플로깅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담배꽂초와 플라스틱 음료 컵이었고, 화초와 잔디 속에 엉켜있는 쓰레기로 인해 힐링 공간으로서의 공원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기후위기 및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이 자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작지만 가장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사)여수YWCA 김예랑 간사

樂(락) 페스티벌 체험부스 실시간 라이브



(사)여수YWCA에서는 7월 24일(토) 오후2시 동아리 樂(락) 페스티벌 체험부스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했다. 본 행사는 교구를 사전에 발송 후 라이브를 보며 교구를 따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부스는 총 5개가 운영되었다. 동아리 樂(락) 페스티벌은 청소년 동아리 홍보와 청소년문화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진행은 박은빈(여수여자고등학교) 여수YWCA 청소년 동아리 Y-틴 회장이 맡았으며, 라이브 방송은 약 30분가량 진행되었다. 8월에도 온라인 체험 부스를 운영했으며 동아리 홍보 동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비대면 청소년 문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익산YWCA 제19주년 창립기념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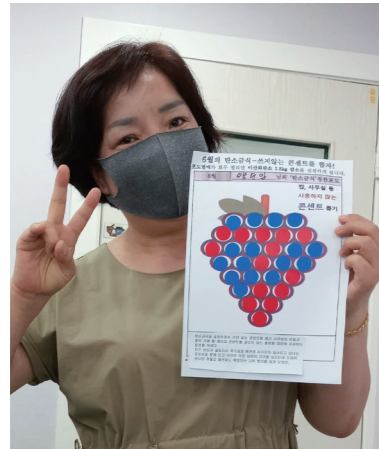


익산YWCA는 7월 14일(목) 창립 19주년을 맞아 증경회장, 이사·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간소하게 치러진 창립 예배였지만 다가오는 20주년을 준비하고 그동안 익산YWCA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초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전주Y '쓰지 않는 콘센트를 뽑자!' 탄소금식 실천운동 진행



전주YWCA는 생명·평화운동의 일환으로 6월 한달 동안 탄소금식 실천운동 '쓰지 않는 콘센트를 뽑자!'를 실시했다. 관심 있는 회원들이 탄소금식 실천키트를 전달받아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 링크 주소에 올리는 방식

으로 진행됐고, 3명의 실천왕을 선발해 기프티콘을 전달했다. 또 전주Y는 7월 한 달 동안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자!' 운동을 진행했다.

제주YWCA

박슬기 간사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제로 예방교육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는 지난 7월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제로 예방교육-강의 및 인형극, 청소년UCC제작'을 진행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마당놀이 인형극을 통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촬영에 대한 사례와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안내했다. 본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사업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 연령·세대별 맞춤 세미나 및 교육, 청소년UCC공모전, 학부모 대상 세미나, 디지털 성범죄 제로 캠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설악편 참가안내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획된 '한민족여성과 함께하는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설악편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연합회와 함께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광주YWCA·서울YWCA가 해마다 번갈아가며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YWCA 주관으로 <MZ 세대와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참여범위를 청년세대로 확대하여 평화의 지평을 넓히고자 합니다.

2021년은 한국YWCA 창립 99주년으로, 총 99명의 평화순례단과 일반참가자가 함께합니다.

- 행사명** 2021 'MZ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 일정** 1) 평화포럼 1차 9월 15일(수) / 2차 10월 1일(금) 온라인
2) 홀로 걷는 평화순례 10월 1일-10월 10일 (10일간) 온라인
3) 평화입산 10월 15일(금) 설악산 당일 등반
- 장소** 온라인, 설악산
- 대상 및 인원** 1) 평화포럼 참가자: 회원YWCA 대표(회원YWCA별 1-2명, 청년회원/청년실무자 추천 시 추가가능)
2) 홀로 걷는 평화순례 참가자: 회원YWCA 대표(회원YWCA별 2-3명, 청년회원/청년실무자 추천 시 추가가능)
3) 평화입산 참가자: 포럼 참가자 중 21명 선정
- 참가 신청** 1) 신청기한: 2021년 9월 3일(금) 오후 5시
2)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서울YWCA 회원활동팀 member@seoulywca.or.kr (문의: 서울YWCA 회원활동팀 강수미 간사 02-3705-6008)
- 참가비** 평화포럼, 평화순례 참가비 무료 / 평화입산 참가비는 1인당 3만원
※ 2021년은 서울YWCA 주관이므로 회원Y별로 신청서와 참가비를 서울YWCA로 보내주세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 자격** 전 국민 누구나
- 신고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신고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 내방·우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지역본부
 - ▶ 담당자 방문 접수: 인터넷·우편·내방 접수가 어려운 경우
- 상담전화** 1577-1000
- 포상금**
 - 내부 종사자 최대 2억 원, 수급자 가족 등 기타 일반인 최대 500만 원 (신고 내용과 관련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
 - ※ 익명신고 및 공모(가담자)시 포상금 제외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인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당청구 신고로 재정 누수 방지에 동참해주세요

